



코스피	2300.16 (+13.66)	코스닥	784.70 (+3.29)
금리 (우대금리)	2.08 (-0.02)	환율 (원/달러)	1123.80 (-0.20) (7일)



[뉴스]
흔들리는 자영업
망원역 일대 가보니
유명세에 월세만 올라
02

文 대통령 “마차에 자동차 속도 맞춘 영국의 실패 보라”

인터넷은행發 ‘붉은 깃발론’, 규제혁신 신호탄?

인터넷銀行규제혁신 현장 방문
‘은산분리’ 탄력 적용 시사
모탈헤저드 등엔 엄격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의 ‘붉은 깃발법’ 이야기를 꺼내며 인터넷 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등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붉은 깃발법 때문에)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면서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 있고

시장시켜버릴 수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영국이 가장 먼저 개발한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서 주요 선진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붉은 깃발법은 영국이 19세기 말 마차산업을 보호하고 마차 속도에 자동차 속도를 맞추기 위해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어 속도를 줄이도록 했던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면서 출범한지 1년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

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하지만 규제 발목을 잡으면서 금융 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었던 은산분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과 기술투자는 허용하되 대주주의 ‘모탈헤저드(도덕적 헤이)’ 등에 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주주의 사금과 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

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도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 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반도체 굴기에 맞서는 JY의 전략

삼성 “미세공정서 초격차 유지”

JY, 화성 반도체 연구소 찾아
경영진에 끊임없는 혁신 당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술 초격차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6일 김동연 부총리와 간담회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바로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경영진에게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 중국의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 전자업계의 현실과 함께 이 부회장이 강조한 ‘반도체 기술 초격차’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먼저 디바이스 솔루션(DS)부문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기남 DS부문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강호규 반도체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최첨단 EUV(극자외선) 개발 라인을 깜짝 방문해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2월 착공한 화성 EUV라인은 2020년 본격 가동 전까지 초기 투자 비용만 6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설비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 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반도체 1등 기업이라는 자부심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달라”고 부탁했다.

EUV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포토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한 제조공정을 말한다. 실리콘 기반의 원판인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겨 넣기 위해 레이어 광원을 투사하게 되는데 EUV 공정은 극자외선 파장을 가진 광원을 활용해 진행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삼성은 기존 대비 10분의 1미만 크기인 EUV 스캐너를 이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차세대 반도체에 적용되는 7나노 이하 최첨단 미세공정 기술을 선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7나노 공정 생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개발

라인 방문의 의미를 미세공정에서의 리더십 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업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반도체 부문에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는 데 대해 월등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이 부회장은 “메모리반도체 세계 1등에 안주하지 말고 차량용 차세대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의 미래 스마트기기를 만드는 생산할 글로벌 제조기업에 첨단반도체를 공급해 왔다. 이들 기업에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메모리 분야를 비롯해 미래 반도체 연구개발(R&D)과 투자도 중시하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대목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국가교육회의, 2022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現 중3, 수능 위주전형 확대 선발비율 등은 대학 자율로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현 중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전형이 현재보다 확대된다.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로 정해하고, 수능 영어와 한국사 이어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영)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권고안이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L4면〉

권고안에 따르면,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율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다만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설립 목적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 시 선발방법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는 공론화 의제 4가지에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대학 자율 또는 활용 가능 입장이었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처럼 일부 과목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다만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 과목이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유지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아울러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추후 수능 절대평가 과목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권고안과 별도로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 보완 방안을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신인영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속의 결과에 기반해 마련됐다”며 “대학입시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일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참여단 490명의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날(6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권고안은 교육부에 송부되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권고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hys@

“망리단길 유명세는 극소수 점포에… 월세만 올랐어요”

흔들리는 자영업 서울 주요 상권 가보니

⑥ 망원역 일대

망원동+경리단길 '망리단길' 지칭
특색있는 카페·식당 등 유명해져

전분기 대비 임대료 9.5% 올라
신촌마포권역서 상승폭 가장 커

#.경기 불황에 최저임금도 올라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망리단길'이 유명해지면서 집주인들이 땅값을 올리는 바람에 많은 상인과 주민들이 나갔습니다. 원래 있던 가게 대신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물주들에게만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망원동 지역 상인들이 겪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망원동 지역에서 10년째 부동산업을 해왔다는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원래 침체되었던 곳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이 활성화됐는데 겉모습만 화려하지, 요즘엔 되는 집만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잘 안된다”며 “이 지역 가게들 중 10~20%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망리단길”은 망원동과 이태원 경리단길의 합성어로, 망원동 포근로 일대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곳은 특색 있는 소규모 카페와 식당 등이 입소문을 얻으며 지역



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망원동과 이태원 경리단길을 합친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난 6일 저녁 망원동 일대를 돌아다녀 본 결과 박씨의 말대로 가게들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임에도 비어있는 식당이 많았다. 맛집으로 알려진 몇몇 가게 앞에서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망원동 지역에서만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모씨는 “지역이 유명해지면서 월세가 두 배 이상 올라 여쩔 수 없이 떠나는 상인들을 많이 봤다”며 “자본주의 시대에 집주인들의 욕심도 이해가 가지만 인기 있던 가게들이 나가게 되면 지역의 활력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를 그렇게 올리면 결국 나가려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덧붙였다.



6일 저녁 찾은 망원역 일대는 맛집으로 알려진 몇몇 식당을 제외하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임대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건물도 종종 눈에 들어온다.

이날 만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건물주도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장사 형편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게 앞을 정리 중이던 식당 주인 강모씨는 “원래 우리집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매출이 반의 반으로 준 상황”이라며 “일단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을 줄여야하지 않을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손님이 없는 식당 내부에선 아르바이트생 3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웃 가게를 운영하는 유모씨도 “오른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손님이 많이 줄어 알바 없이 두달째 혼자 일하고 있다”며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건 무리여서 5일 정도만 가게 문을 연다”고 말했다.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자의 격정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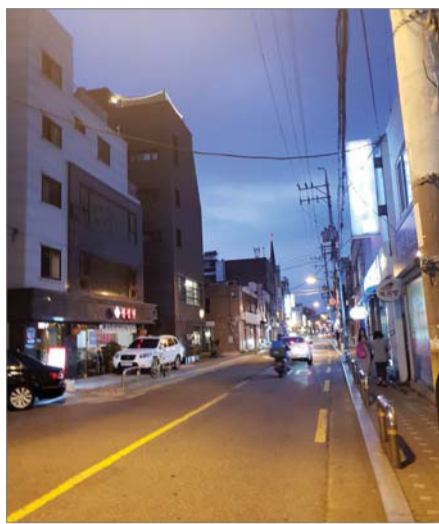


6일 저녁 찾은 망원역 일대는 맛집으로 알려진 몇몇 식당을 제외하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임대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건물도 종종 눈에 들어온다.

외는 아니었다. 손님으로 꼭 찬술집의 사장 이모씨는 “예전에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요즘엔 많이 줄어 이리다 발길이 끊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상권도 살고 지역주민도 사는 상생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114가 공개한 2018년 1분기 상권 임대료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상권임대료가 전분기 대비 2.1% 하락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망원동 지역은 전분기 대비 9.5% 오르며 신촌마포권역에서 임대료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망리단길의 침체를 도리어 반기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망원동 일대가 유명해지면서 소음, 교통혼잡, 쓰레기 무단투기, 월세 인상 등 삶의 질이 나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투어리피케이션(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이 내몰리는



6일 저녁 찾은 망원역 일대는 맛집으로 알려진 몇몇 식당을 제외하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임대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건물도 종종 눈에 들어온다.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 김 모씨는 “원래 조용한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시끄러워져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고 골목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망원동에서 1년째 살고 있다는 B씨는 “월세가 저렴한 편이어서 망원동을 찾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해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며 “이곳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망원동이 유명해지면서 상가 임대를 문의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이와 동시에 집값이 올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소형 아파트 포함 신규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규모 (가구)	전용면적 (㎡)	분양시기
경기도 성남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71 (255)	40~74	8월 예정
부산시 연제구	힐스테이트 연산	1,651 (1,017)	59~84	8월 예정
서울시 노원구	노원 꿈에 그린	1,062 (829)	59~114	8월 예정
경기도 안양시	안양씨엘포레자이	1,394 (791)	39~100	분양 중

* 분양계획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세는 소형아파트, 건설사 줄분양

1~2인 가구 증가로 선호도 높아
6월만 전국서 1만8000건 거래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대출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영향이다. 이에 건설사들도 소형 아파트에 특화설계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집계 따르면 지난 6월 전용 60㎡ 이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150건이다. 이는 중소형인 전용 61~85㎡ 아파트 거래량인 1만6735가구보다 약 8%, 전용면적 86~135㎡ 거래량 4144가구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분양시장에서도 소형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안양에서 공급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전용 46㎡는 5세대 모집에 564명이 몰려 11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단지 전체 공급 주택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또 지난 3월 서울 당산동에서 분양한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면적 46㎡는 9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서울 방배동의 '서리풀 서해그랑

블' 전용면적 49㎡는 102.3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했다.

이런 분위기에 건설사들은 공간 활용을 높인 소형 아파트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주)한양은 성남에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를 이달 선보인다.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2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40~74㎡, 711가구 중 25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 중 전용면적 74㎡ 2가구를 제외한 253가구가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 부산 연제구 연산 3동 2022번지 일원에 연산3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연산'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연산'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8개 동 전용면적 39~84㎡ 1651가구로 조성된다. 조합원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 1017가구 중 전용면적 59㎡는 223가구다.

서울에서는 한화건설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노원 꿈에그린'을 이달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16개 동 1062가구 중 조합원 829가구, 임대 141가구를 제외한 9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소형인 전용 59㎡는 177가구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당정, 7~8월 주택전기로 누진제 완화

1512만 가구, 月평균 1만원 부담 감소

1·2단계 상한, 각 100kWh씩 상향
사회 배려계층엔 30% 추가 할인

사상 최악의 폭염에 따른 냉방기구 다 사용으로 국민 사이에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올 7~8월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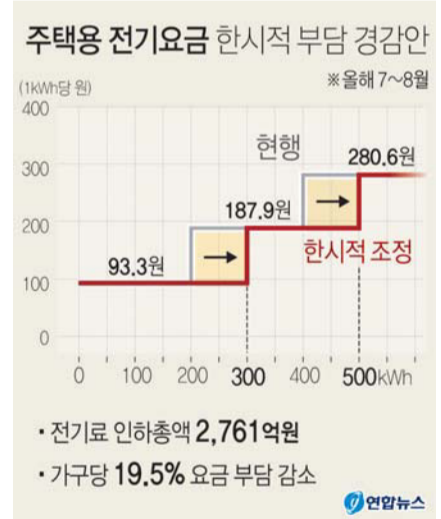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열어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올 7~8월 한시적으로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 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정협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을 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장관은 7월 전기요금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공약에... 당론에... 소신에... 짝 막힌 은산분리 규제완화

최종구가 총대 메고, 대통령까지 나서... 겨우 풀렸다

〈금융위원장〉

현재의 제도 신산업 성장 억제
대원칙 아래 운신 폭 넓혀줘야
금융권 전체의 경쟁·혁신 촉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의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목하면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해 "지급의 제도(은산분리 원칙)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늦은 것은 물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 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 '답답하다'던 대통령 직접 나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며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없었던 데 대한 질타였다.

특히 이번 정부의 규제혁신은 금융산업을 주목했다. 금융사들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의 혜택은 누리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이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단순히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사간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네번째)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시연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현장방문 장소 역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휴식하는 시민청을 택해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은산분리 완화, 공약 파기 아냐"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됐다.

최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설득작업을 시작했고, 당론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했던 여당 역시 규제완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일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대통령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발벗고 나섰다지만 법안통과를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은산분

리 완화에 대해 재벌의 사금고화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참여연대와 정의당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조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

〈발의 법안별 주요내용 비교〉

구분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개정안)		
	강석진책	김용태책	정재호책	김관영책	유익동책
지분보유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적용 제외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
대주주 신용공여	-	금지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금지	자기자본의 10%한도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	-	-	-	-

/자료=금융위

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

가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다.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재벌 사금고로 전략 우려”

규제완화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략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추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감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면 재벌의 입금이 센 현실에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2013년 터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없다면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은행산업에 지배력이 옮겨가고, 은행업을 이용한 불공정한 경쟁등이 심화돼 산업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쟁력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별다른 사회적 편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했지만 카카오뱅크는 6.8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한 반면 케이뱅크는 약 1.3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5@

BMW Korea



BMW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화재로 인해 BMW 고객님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당국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를 겪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BMW 본사에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경영진이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BMW 차량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프로젝트 팀 1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BMW 코리아 및 관련 파트너사 등과 함께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은 한국 고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안전 진단과 자발적 리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BMW 코리아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본사 기술 부문 최고 책임자들로 하여금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EGR 콜러의 냉각수 누수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수 현상만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주행거리, 속도 및 주행시간, EGR 바이패스가 열리는 상황 등 제한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하였을 때 비로소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한국과 전 세계가 비슷한 비율이지만 한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단을 구성해서 독일 본사를 방문하고, 사고의 유형을 정리해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과정에 대한 모든 기술적 정보를 정부 당국에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고객님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또한 약속드리겠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의 고객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전국 61개 서비스 센터 및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를 24시간 운영하여 일일 약 1만여 명의 안전 진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즉각 점검을 받지 못하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요청 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렌터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센터에서 렌터카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BMW 코리아 및 BMW 공식 딜러사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여 고객님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임직원 일동

대상차종 확인 및 서비스 안내

1. 리콜 대상 차량 확인

- BMW 코리아 홈페이지 리콜 대상 차량 조회 서비스
www.bmw.co.kr/ko/topics/owners/bmw-recall.html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국토부 자동차 리콜 신고 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jsp/recall/recallSearch.jsp

2.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및 리콜 서비스 예약처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BMW Plus 애플리케이션(리콜 예약만 가능)

땀 올린 포스코 최정우號... 임원진에 개혁 아이디어 주문

“위로부터의 변화 아닌 다함께 개혁 추진”

‘뉴 포스코 로드’ 출발 위해
실장·법인장급 이상 임원에
‘개혁 방안 요구’ 메일 발송

“포스코의 변화와 개혁은 임원들부터
앞장시켜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사
와 궤를 같이한 포스코 50년 역사의 변화
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그룹 내 임원진에 재도약을 위한
개혁 아이디어를 주문한 것.

포스코는 최 회장이 최근 그룹사 실장·
법인장급 이상 전 임원에게 새로운 50년을
향한 ‘뉴 포스코 로드(New POSCO Roa
d)’의 출발을 위해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내달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메일에서 “건설적인 의견 개
진은 그동안의 마음가짐, 리더십, 태도,
일하는 방식, 업무관행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우리
의 실상을 ‘위드포스코(With POSCO·더
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관점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작은 사진)과 포스코 대치동 사옥.

서 철저히 반성해보고 이러한 성찰에 기
반해 100년 포스코를 위한 시정·개선·개
혁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주
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아이디어들은 포스코그룹에 공
통적으로 적용할 사항, 소속 그룹사에 적
용할 사항, 본인 업무분야에 적용할 사항

으로 구분해 임원이 직접 구체적이고 상
세하게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 개
혁과제 수립을 위한 건의사항인 포스코
러브레터 접수에 나서는데 포스코 그룹
의 변화와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의 변화와 발
전을 위해 임원들부터 자신을 낮추고 본
인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
과 성찰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유용한 전
락을 수립,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해 달라
는 당부이자 다짐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원들이 제안한 개혁 아이디어는 포
스코 러브레터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과
함께 최 회장 취임 100일쯤 구체적 미래
개혁과제로 발표·실행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최 회장이 지난달 취임
사에서 강조한 실질·실행·실리 등 3실 업
무원칙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그룹 차원에서 운영했던 전략 협의 회의
체들을 통합해 안건 발생 시에만 개최하
고 참석자도 관련 임원들로 한정 짓는 전
략조정 회의로 간소화했다.

또 간단한 업무 보고는 이메일로, 업무
현황 정보공유 보고는 사내 업무보고 템
플릿인 ‘포위스(POWIS)’로 활용되며 파
워포인트는 의사결정용 회의 시에 5매 이
내 분량으로 제한됐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TV광고 화면.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창사이래 첫 TV광고 “글로벌 위상 알릴 것”

롯데케미칼은 창사이래 최초로 TV광
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전파를 타기 시작한
이번 TV광고의 테마는 롯데케미칼의 ‘C
hemical’과 세계에서 활약하는 이야기의
‘Story’를 합친 ‘Global Chemistry’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롯데케미칼의 활약상
과 위상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로 방영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편은 지난 2010년 인수한 말레이시아 타
이탄 공장을 배경으로 한다. 롯데케미칼
이 약 7년만에 기업가치를 약 2.5배 이상
높여 말레이시아 증시에 재상장시킨 성
과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및 시네마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및 시네마 캠페인은 ‘해결되
지 않는 문제는 없다’는 롯데케미칼의 도
전정신을 ‘No matter’란 콘셉트에 담아
친근한 애니메이션으로 젊은층을 타깃으
로 제작됐다.

친근한 롯데케미칼의 캐릭터가 세계를
넘나들며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프로젝트,
미국 에탄크래커 플랜트 건설 등 롯데케미
칼이 성공적으로 완수했거나 친환경, 신소
재 개발 등의 진행중인 사업을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삼성전자 ‘소비자용 4비트 SSD’ 최초 양산

기존 고성능 3비트 SSD와 동급
고용량 스토리지 대중화 기여

삼성전자가 1Tb(테라비트) 4비트 V낸
드(V4) 기반으로 소비자용 4Tb(테라바이
트) QLC(4비트) SATA SSD를 업계 최
초로 본격 양산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고성능 3비트 SSD와
동등 수준의 성능과 동작 특성을 실현하
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용 SSD 시장
에서 초고용량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
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06년 32GB 1비트(SL
C) SSD를 출시했다. 2010년 2비트(ML



삼성전자 4TB QLC SSD. /삼성전자

C) SSD, 2012년 3비트(TLC) SSD에 이
어 올해 7월부터는 4비트(QLC) SSD를
업계 최초로 양산했다. QLC는 1개의 셀
(CELL)에 2진수 4자리 데이터를 담는
기술이다. 셀 하나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기존 3비트에서 4비트로 늘어나면 같은
칩 크기에서 저장 용량을 33% 늘릴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셀이 구분해야 하는 데이
터 경우의 수가 8개에서 16개로 늘어나면
서 각 단위당 전하량(보관된 전자의 총
합)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더욱 세밀
하게 제어해야 하기에 제품 최고 성능 달
성과 속도를 지속 유지하는 기술적 난이
도가 매우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4세대(64단) 1Tb 4비트 V
낸드 칩 32개를 이용해 업계 최대인 4Tb
SSD를 만들었다. 기존 고성능 3비트 SS
D용 컨트롤러와 터보라이트 기술을 활용
해 4Tb QLC SATA SSD의 읽기 속도
540MB/s와 쓰기 속도 520MB/s를 구현
했다. 기존 고성능 3비트 SSD와 같은 수

준이다.

1Tb 4비트 V낸드는 칩 하나만으로 스
마트폰에 탑재하는 고성능 128GB 메모
리카드를 만들 수 있어 향후 고성능, 고
용량 스토리지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
한재수 부사장은 “새롭게 출시하는 소비
자용 4비트 SSD는 테라바이트 SSD 대
중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소
비자 시장에 이어 기업 시장까지 적용분
야가 확대되며 테라바이트 SSD 제품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소비자용 2.5인치 4비
트 SSD 라인업으로 1, 2, 4Tb 등 3가지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양병도 기자 catchrod@

한화큐셀재팬, 日 가상발전소 사업자 선정

품질관리·기술력·현지화 통했다

외국계 태양광 모듈 제조사 최초

한화큐셀재팬이 일본 내 외국계 태양
광 모듈 업체 최초로 일본 가상 발전소 사
업자로 선정됐다.

한화큐셀재팬은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서 실시하는 ‘수요자 측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가상 발전소 구축
실증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외국
계 태양광 모듈 제조사로는 최초다.

가상 발전소는 자치단체나 기업, 일반
가정에 분산된 소규모 발전설비 및 전력
관리 시스템을 통합 제어해 하나의 발전
소처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
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규모 집중식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난 복원
능력이 뛰어난 분산형 발전을 도입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가상 발전소 구축을 위해서는 높은 수
준의 전력 제어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한화



(왼쪽부터)대형 발전소, 상업용,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 이미지. /한화큐셀재팬

큐셀재팬은 이번 사업에 자원 관리자(Re
source Aggregator)로 참여해 각 소비
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력 제어 및 관
리를 실시한다.

자원 관리자들이 수집한 전력은 중앙
관리자에 의해 통합 관리된다. 잉여전력
은 전기 배전업체나 발전사업자와의 거
래를 통해 수익으로 이어진다. 규주 전
력, 간사이 전력, 도쿄 전력은 추후 본 사
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가상 발전소
의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 발전소는 2012년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도입 이후 일본 내 급속도
로 보급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
목 받고 있다.

한화큐셀재팬은 가상 발전소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
근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체계를 구축하는 등 태양광 발전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 전력화를 추
진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제주항공 상반기 매출 5918억원 16분기 연속 흑자 행진

제주항공이 2018년 2분기 연결기준으
로 매출 2833억원과 영업이익 116억원, 당
기순이익 168억을 기록하며 지난 2014년
3분기이후 16분기 연속흑자를 달성했다.

7일 제주항공이 발표한 올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5918억원, 영업이익 581억
원, 당기순이익 538억원을 각각 기록했
다. 전년동기 대비 26.4% 늘어난 상반기
매출액은 창립이후 처음으로 5000억원대
를 돌파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보다 33.9% 증가
했다. 영업이익률은 9.8%를 기록했다. 영
업이익은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
다. 분기기준으로는 2014년 3분기부터 16
분기 연속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순이익은
53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6.6% 늘었다.

2분기는 전년대비 유류비 상승 및 상대
적으로 줄어든 공휴일수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지난해 보다
28.4% 줄어든 11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유류와 환율 등 외
부변수에 직접 노출돼 있는 항공사의 구
조를 보완하기 위해 유류 및 환 헷징을 통
해 비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의
이익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전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하늘 아래 같은 화면은 없다’ 나만의 맞춤 TV로 취향저격

SK브로드밴드 ‘Btv’ 간담회
시청이력·연령별 선호도 추천
광고없이 즐겨찾는 화면 시청
키즈·‘옥수수’의 스포츠 강화

SK브로드밴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흥 화면을 개인 취향에 맞도록 개편하는
한편, 키즈 콘텐츠 ‘살아있는 동화’를 출시
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거대 ‘미
디어 공룡’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SK브로드밴드는 서울 중구 SKT
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 사업 전략 방향을 밝혔다.

윤석암 SK브로드밴드 미디어부문장은
“유료방송 서비스도 전통적인 가족 단
위 셋톱박스 기반의 똑같은 요금제, 서비
스, 콘텐츠에서 벗어나야 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를 바탕으
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데이터

기반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를 선보이
겠다”고 말했다.

우선 ‘B tv’의 흥 화면은 B tv 홈, 실시
간 TV, 키즈 채널 등 3가지 첫 화면 중 선
호하는 시청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
게 돼 개인 별 취향에 맞춰 고르면 된다. 고
객의 가입, 이용 행태를 반영해 시청이력
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실시간 야구를 좋아하는 고
객은 다른 메뉴 화면을 거치지 않고 TV
를 켜면 첫 화면부터 바로 야구 중계를 볼
수 있다. 최신 영화나 인기 드라마를 즐기
면 TV 첫 화면에서 바로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식이다.

키즈 콘텐츠도 강화된다. 최근 SK브로
드밴드뿐 아니라 LG유플러스와 KT도
자사 인터넷TV(IPTV)를 통해 키즈 콘텐
츠를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증강현실(AR)을 키즈 콘텐츠에 접목
한 ‘U+tv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인 바
있다. 아이들나라 서비스는 출시 1년 만
에 이용자 100만명, 연간 시청 7억건을 기

록하고 있다. KT도 ‘소리동화’, ‘동화 오
디오북’ 등 인공지능(AI)에 특화된 키즈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키즈 시장을 공략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증강·가상현실(A
R·VR) 기술인 ‘T리얼’ 등을 ‘살아있는
동화’ 서비스에 구현했다. 살아있는 동화
는 3D 안면인식 기술, 실시간 표정 자동
생성 기술 등을 적용해 TV 속 캐릭터의
얼굴 위치에 아이의 얼굴을 덧씌울 수 있
다. 웃고, 화내는 등 20가지 이상의 표정
도 구현할 수 있어 동화 속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뀐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SK브로드밴
드는 2002년부터 ‘뽀로로’에 투자를 단행
하는 등 지금까지 400억원을 애니메이션
에 투자하고 있다”며 “키즈계의 ‘빅 브라
더’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
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즈뿐 아니라 부모님 세대를 위한 시
니어 메뉴도 오픈해 건강, 취미 등 전용
콘텐츠 추천을 제공한다. 1020세대를 위



모델이 SK브로드밴드의 ‘살아있는 동화’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

해서는 SM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손잡고
노래방 서비스 ‘에브리싱TV’도 선보였
다. 에브리싱TV는 SM의 노래방 애플리
케이션(앱) ‘에브리싱’을 IPTV로 확장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SM의 신곡을 TV에
서 즐길 수 있다.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의 스포
츠 기능도 강화했다. 회사는 중계방송 지
연현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SK텔레콤
미디어기술원과 함께 개발해 중계방송
지연 없는 ‘가장 빠른 프로야구 중계’를 8
일부터 제공한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 공룡 넷
플릭스와의 제휴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주도하고 있는 미
디어 시장에서 ‘적과의 동침’이나, 독자

생존이나를 고민해야 하는 셈이다.

윤석암 미디어부문장은 “넷플릭스는
콘텐츠 대가에 대해 국내 CP들과 다르게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인 9대 1을 요구하
고 있다”며 “미국에서 오는 망의 대가에
대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고
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의 업체와의 제휴 가능성은 열고 있
지만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독자 생존에 집중하겠다는 의
미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에서 SK브로드
밴드는 ‘옥수수’를 통해 국내 OTT 시장
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올해 100억원 규
모의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이어갈 방
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1500만원 ‘LG 올레드 TV’, 209만원에 판매

(2013년)

(55인치)

LG전자 대중화 박차

LG전자는 이달말까지 올레드 TV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55인치 제
품을 기존보다 30만원 낮춰 209만원에 판
매한다. 200만원 문턱까지 가격을 내려 올
레드 TV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프리미엄급 LCD TV와 견줄 수 있는 수
준이 됐다. 55인치 올레드 TV 가격은 LG
전자가 양산을 시작한 2013년에 1500만원
이었다. 5년만에 86% 낮아진 가격이다.

대형 올레드 TV도 과격 할인을 진행한
다. 77인치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를
기존보다 600만원 낮춘 1700만원에 판매한
다. 구매 고객에게는 홈뷰티 기기 LG 프
라엘 플세트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1700
만원에 판매하던 77인치 올레드 TV는 200



LG전자 모델들이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LG 베스트샵 서울양평점에서 LG 올레드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만원 낮춘 15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올레드 TV 세계 시장 규모는 가격 경
쟁력이 높아질수록 크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약 25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LG

전자가 처음으로 올레드 TV를 양산하기
시작한 2013년에는 30만대 수준이었다. 5
년만에 8배로 늘었으며 2022년에는 935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GU+ 해외 로밍하면 면세점 혜택 쏙다

20% 할인·경품 등 증정

LG유플러스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면세점과 제휴를 통해 등급 업데이
트를 제공하고 경품을 증정한다고 7일 밝
혔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신라아이파크 인
터넷면세점 LG유플러스 전용 이벤트 페
이지에서 로그인 후 ‘혜택 받기’를 클릭하
면 브랜드 별 최대 20% 즉시 할인이 가능
한 ‘I패니’로 등급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I패니 등급은 면세점 회원등
급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매일 쇼핑
지원 적립금과 16% 추가 할인 쿠폰이 제
공된다.

오는 31일까지 U+해외로밍 요금제를
이용한 고객은 신라아이파크 인터넷면세
점 LG유플러스 전용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첨을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도 교환권
(500명)을 증정한다.



모델이 LG유플러스의 면세점 혜택 제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아울러 SM온라인면세점내 LG유플러
스 전용 이벤트 페이지에서 ‘적립금 혜택
받기’를 누르면 특별 적립금 20만원을 증
정한다. 적립금은 온라인 주문 시 최종 결
제 금액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

SM면세점 특별 적립금 및 컵라면 증
정 행사는 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김나인 기자

LG이노텍

어린이 교통안전 앞장 ‘옐로카펫’ 지원 눈길

LG이노텍이 충청북도 청주시시에 위치한
셋별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어린이들
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을 설
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옐로카펫’은 LG이노텍 청주사업
장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직접 설치한 것
으로, 지난해 청주시 봉정초등학교 앞 설
치에 이어 두 번째다.

옐로카펫 상단에는 태양광 램프를 달
았다. 이 램프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켜진다. 야
간에 옐로카펫 구역을 밝게 비추어 어린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 후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시인성이
40~50% 좋아지고 차량 속도도 5~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CU에서 CJ헬로 알뜰폰 유심 구매하세요”

‘CU 유심 10GB 100분·300분’

CJ헬로 헬로모바일은 CU편의점을 운
영하고 있는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심요금제를 전국CU매장에서 판
매한다고 7일 밝혔다. 출시되는 요금제는
CU전용 상품으로 ‘CU 유심(USIM) 10G
B 100분’과 ‘CU USIM 10GB 300분’ 두
종류다.

데이터 10GB에 음성 100분, 문자 100건
이 지급되는 CU USIM 10GB 100분은 월
2만900원, 데이터 10GB에 음성 300분, 문
자 300건이 지급되는 CU USIM 10GB
300분은 월 2만9700에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가까운 매장에서 간편하게 U
SIM을 구매한 후 온라인 페이지나 개통
센터에서 가입해 사용하면 된다. 쓰던 단
말과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심만
교체하면 돼 요금제를 이용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
사 측은 설명했다.

CJ헬로는 새 요금제 출시를 통해 전국
의 CU편의점 매장을 유통채널로 확대할



모델이 헬로모바일의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CJ헬로

수 있게 됐다.

헬로모바일은CU전용요금제 론칭에 맞
춰 특정 순서(1·10·100·111·
200·300·333·500·700·1000번제)에 가입한
고객 10명에게 10개월동안 기본료를 무료
로 제공한다. 또 선착순으로 가입자 2000명
에게 CU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헬로모바일의 USIM은 수요가 높은
900여 개 점포에서 우선적으로 판매한 후
전국 약 1만3000개 매장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대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간편대출’ 늪에 빠진 20대... ‘연체’에 발목 잡힐라

20대 청년들 소액 간편대출 증가 승인 소요시간 10분 이내 ‘현혹’ 대출경험자 15.2%가 연체 경험

#이달 초 대학생 정영철(26)씨는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 간편대출을 통해 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 씨는 인생 첫 대출을 결심하기까지 일주일의 고민했지만 그가 스마트폰으로 100만원을 대출을 받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 씨는 “이렇게 손쉽게 대출이 되니 내 돈처럼 쓰게 된다. 취업준비 전 여행인 만큼 여행기간을 늘리기 위해 100만원을 추가대출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3無(무담보·무서류·무방문) 시스템’이 대출시장에 정착한 지 1년.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로 대출을 받는 모습은 금융거래의 단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액 간편대출을 통해 급전을 당기는 20대가 늘면서 청년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기 쉽상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간편대출의 ‘편리함’, ‘신속함’에 대출을 실행한 20대 중 상

당수가 신파일러(Thin-Filer·금융거래이력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로, 신용관리와 금융의 이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1년차에 접어든 비상금대출 등 간편대출 상품이 대출잔액을 큰 폭을 늘리고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간편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은행권 전반의 간편대출 시장이 발을 넓히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상품은 ‘19세 이상’, ‘1~8등급 포괄’, ‘대출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소요시간 60초’를 내걸어 간편대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여신(대출)잔액은 7조원이다. 이중 비상금대출 상품의 대출 잔액이 4.0%를 차지한다. 약 2800억원 규모로 분석된다. 비상금대출의 최대 대출금액이 300만원인 것으로 감안해 분석할 시, 지난 1년간 최소 9만3000명이 넘는 고객이 대출을 실행한 셈이다.

이처럼 소액 간편대출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전연령층 중 20대의 움직임이 가

장 독보적이다. 그들은 낮은 대출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간편대출 상품의 특징상 안정된 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학생들도 쉽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지난 달 여신(대출) 잔액은 1조1500억원 상당이다. 대출을 실행한 고객수는 78만명에 달한다. 이중 20대는 전 연령층 중 30대(36%) 다음으로 많은 비중인 28%로, 21만8400명에 달한다.

문제는 20대 중 청년 신파일러(Thin-Filer)의 대출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신용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 5월 한 달간 우리나라 대학생 38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신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대학생은 78%에 달했지만, 자신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대학생은 19%에 불과했다.

청년의 연체경험률도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청년 대출경험자 중 15.2%가 연체를 경험했으며,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도 대출경험자의 2.9%였다.

이에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3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은 대부분이 채가 주로 취급하는 대출금액이다. 이같은 소액을 받는 타겟층도 위험부담이 높은 차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

터넷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은 소액대출을 남발해 저변을 넓히기 보단 가계여건이 어려운 차주에게 위험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차원에서 속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1@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 “잠자는 신탁 깨우고 찾아가세요”

BNK경남은행은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잠자는 신탁(휴면 신탁 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형 신탁과 일반 신탁이다.

연금형 신탁은 적립 만기일을 경과한 잔액 120만원 미만 계좌, 미지급 연금 보유 계좌, 연금 수령 요건을 만족한 계좌(5년 이상 불입·만 55세 이상) 등이 포함된다.

일반 신탁은 잔액과 관계 없이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과 관계 없이 적립 만기가 경과 계좌 등이다. 잠자는 신탁은 BNK경남은행 홈페이지 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잠자는 신탁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

문하면 해지 가능하다.

통장과 거래 인감을 지참하면 더욱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통장을 미지참한 경우 통장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 1년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미만인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다.

신탁사업단 김기진 단장은 “고객의 자산인 휴면 신탁 계좌를 찾아주기 위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고객에게는 등록된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우선 안내를 하는 등 지난월부터 잠자는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잠자는 신탁 찾아주기 운동 기간이 20일 남짓 남은 만큼 휴면 신탁 계좌를 인지한 경우 잊지 말고 반드시 잠자는 신탁을 깨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비씨카드 ‘#마이태그’ 하면 가맹점 자동추천

비씨카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가맹점 혜택을 추천하는 플랫폼인 ‘#마이태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점이 자체 할인 혜택을 ‘#마이태그’에 등록하면, 비씨카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3800만 고객 중 해당 가맹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고객을 추출해 해당 혜택을 노출시킨다.

고객은 먼저 비씨카드 모바일 앱 첫 화면에서 소비 성향에 맞는 가맹점 혜택을 추천 받게 된다. 추천 받은 가맹점 혜택을 ‘태그’한 후 해당 가맹점에서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9월 한 달 동안 ‘#마이태그’를 통해 발생한 모든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맹점은 오는 8월 20일까지 비씨카드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이벤트 신청 시 #



마이태그’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구매 금액대별 할인 혜택을 ▲10% 캐시백(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000원) ▲7% 캐시백(3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원) ▲5% 캐시백(5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 ▲3000원 캐시백(4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캐시백(2만원 이상 구매 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장은 “가맹점은 ‘#마이태그’를 통해 비씨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에 비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영·중·소가맹점도 효과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외국인 채권보유 112兆... 사상최고 ‘경신’

7월, 지난달 比 1.5兆 늘어 최고 경신 원화 약세에도 ‘안전자산’ 거래 지속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가 한 달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7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7월 장외 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112조 435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6월 말의 110조 5620억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제채 2조 2000억원, 통안채 1조 400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을 순매수했다.

다만 한미금리 역전 폭 확대로 순매수 규모는 전월(7조 8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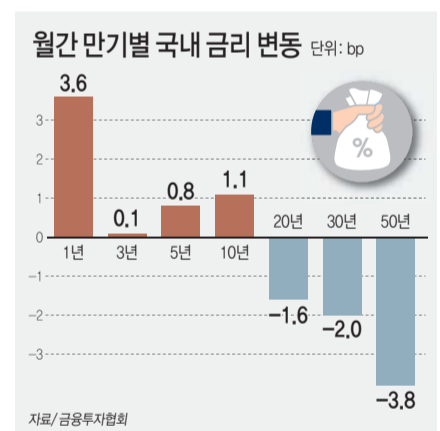
금투협 관계자는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외환스왑포인트(선물환율-현물환율) 마이너스로 외국인 재정부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채권발행 규모는 55조 7000억원

(2018년 7월 말 국고채 금리)

(단위: %)

국고채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금리	1.880	2.123	2.360	2.567	2.545	2.532	2.461



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국제발행은 늘었으나 금융채, 회사채, 특수채 발행이 줄었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3건, 1조 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량기업의 금리 인상 전 발행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5조 8706억

원이고, 참여율(수요예측참여금액/수요예측금액)은 337.4%로 작년 7월보다 23.6%포인트(p) 증가했다.

등급별 참여율은 AA등급 이상 317.5%, A등급 415.8%, BBB등급 이하 301.5% 등이었다.

지난달 장외채권 거래량은 영업일수 증가와 금리 등락에 따른 거래 증가로 전월보다 22조원 증가한 437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평균 거래량은 2조원 감소한 19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 종류별 거래량은 금융채, 통안증권은 각각 37조 1000억원, 11조 3000억원 늘고 국제채는 36조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국내 채권 금리는 국내 경제지표 부진, 미중 무역분쟁 우려 등으로 소폭 등락하다가 단기물은 상승하고 장기물은 하락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예금보험공사 지방소재 대학에 산학협력 지원

예금보험공사가 대학생 등의 금융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KDIC-학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소재 대학을 위주로 참여자를 모집해 지방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KDIC-학계 협력 프로그램’은 지난 11년부터 시작해 7년째 지속하고 있는 예보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예보직원의 대학교 방문 특강’과 ‘학생의 금융 현장실습’ 구성돼 있다.

접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예금보험공사 전경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1대1’ 상담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햇살론이나 바퀴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는 ‘1대1 금융생활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는 진흥원 직원 또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등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진흥원 금융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상담 주제는 가계재무, 저축·소비, 부채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이다.

/나유리 기자

www.homepick.com

방문 픽업 택배 서비스 ~ 홈픽! 1시간의 기적을 만나보세요!

바쁜 일상에서 매번 번거롭기만 했던 택배 보내기는 이제 그만!
쉽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1시간내로 방문하여
크기, 부피와 상관없이 택배를 픽업하는 **홈픽의 새로운 택배 서비스**를 이제 만나보세요!

택배 크기별 가격 동일 / 운송 가능 범위 : 최대 20kg, 세 변의 합이 160cm 이하
픽업 가능 시간 :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
택배 픽업 가능 지역 : 수도권 (8월 중순부터 전국 서비스 예정/단, 도서산간 등 일부 지역 제외)



홈픽 런칭 기념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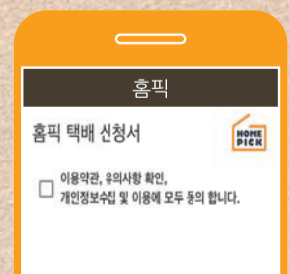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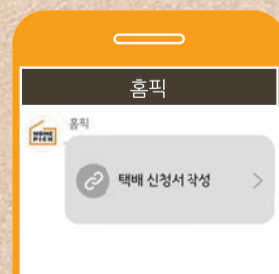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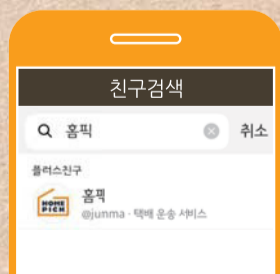
택배 크기,
무게 상관없이

5,500원

3,990원

[~2018년 9월 30일까지]

카카오톡 플러스로
간편하게 택배예약하기



① 카카오톡으로 '홈픽' 친구검색 ② 친구추가 후 채팅방 '배송신청' ③ 택배신청서만 작성하면 신청완료!

www.homepick.com 또는 ☎1800-0987에서 신청/문의하세요.

*SK에너지(주)는 홈픽 서비스를 위한 주유소 네트워크의 제공자로서, 본 홈픽 서비스에 따른 택배 접수, 픽업, 배송 등과 관련한 제반 의무와 책임은 해당 서비스 ((주)줌마) 및 CJ대한통운에게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인천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멀티 배리어 리자드형 300억 한도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9일까지 코스피200(KOSPI200), 홍콩H(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배리어 리자드형 'TRUE ELS 10696회'를 총 30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80%(36개월) 이상이면 연 5.1%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한 리자드 옵션에 따라 모든 기초자산이 설정 이후 6개월간 최초기준가 85% 미만, 또는 설정 이후 12개월간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연 5.1%의 수익을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 된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ETN 홈페이지 개설 이벤트

대신증권은 7일 대신ETN 홈페이지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커피기프트폰을 주는 '대신ETN 홈페이지 놀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대신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크레온 홈페이지, HTS, MTS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하고 '대신ETN바로그'를 통해 대신ETN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가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중 대신증권 홈페이지, HTS, 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품 발송은 대신증권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 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SK해운 채권 판매

키움증권은 SK해운 채권을 세전 연 4.45%에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SK해운 채권은 신용등급 A- 안정적(한국신용평가), 만기는 2020년 2월 3일(1.5년), 연 수익률은 세전 4.45% 수준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장기운송계약 기반의 우수한 사업안정성, 사업구조조정으로 영업현금흐름 개선과 실적가능성 완화, SK그룹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SK해운을 평가하였다. 해당 채권의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며,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 방식이다. /손영지 기자

中 A주, 이달말 MSCI 2차 편입

韓증시서 2100억 매도 예상 '찾잔 속 태풍'

(대형주 중심)

8월 말 중국 A주의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편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찾잔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5월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는 중국 A주 234개 종목을 2단계에 걸쳐 MSCI 신흥국시장(EM)지수에 편입하기로 한 바 있다. MSCI EM지수는 세계 최대 지수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지수로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상장 기업 위주로 구성된다. 신흥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수다.

중국 A주의 MSCI EM 지수 편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추가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7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5월과 비슷하게 지수에 포함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2100억원 정도 주식 매도가 예상된다.

이머징내에서 한국 -0.07% 비중 감소와 패시브 성격의 이머징 추적자금 2650억 달러를 가정한 것이다.

MSCI EM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0.2~0.3%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무슨 문제일까(?) 하지만,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도 예상 A주 편입 이벤트 영향 크지 않아

기준 MSCI EM 지수를 참고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는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단순 계산하면 지난 5월에 이어 8월 말 두차례에 걸쳐 편입될 중국 A주 비중이 0.73%이므로 중국 증시에 글로벌 펀드 자금 116억8000만달러가 유입되고, 한국 증시에선 글로벌 자금 0.2~0.3%인 32억~48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A주 편입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다.

지난 5월 31일 MSCI EM지수에 편입된 국내 종목 거래는 평소 1.8배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은 3조 1000억원에 달했다. 주가는 전날인 30일에 평균 1.7% 급락한 후 편입 당일에는 0.3% 상승했다. 6월 1일에도 평균 0.7% 올랐다. 경험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던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 그리고 올해 5월에 코스피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은 알리바바 등 중국 ADR의 EM 지수 편입이 있었던 때(11월말, 5월말에 편입). 당시 중국 ADR의 EM 지수 편입비중은 A주의 부분편입 비중보다 더 컸다. 또 이들의 지수 편입으로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말에

<예상 매도금액 상위 30>

구분	예상 매도 금액 (억원)	5/31일 추가수익률
삼성전자	470	2.4%
SK하이닉스	124	-1.7%
POSCO	65	-0.7%
셀트리온	59	-1.5%
KB금융	54	-1.1%
NAVER	53	2.6%
현대차	50	1.1%
신한지주	47	-2.2%
LG화학	45	2.4%
현대모비스	40	-1.1%
하나금융지주	34	-0.6%
삼성SDI	33	-2.7%
SK이노베이션	33	3.5%
KT&G	32	-0.7%
LG생활건강	31	0.4%
삼성물산	25	0.4%
삼성전기	24	5.1%
아모레퍼시픽	23	0.8%
삼성화재	22	-0.4%
기아차	22	-1.7%
SK	22	-0.7%
한국전력	22	-1.8%
우리은행	22	0.7%
LG전자	22	-3.6%
삼성SDS	20	-1.4%
LG	19	-0.7%
삼성생명	18	-4.2%
엔씨소프트	18	0.6%
삼성바이오	17	2.2%
롯데케미칼	16	1.5%

8월 3일 마감 기준. /자료=Wisefn·신한금융투자

각각 8000억원 내외의 한국물 매도가 예상됐다.

결과는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모양새는 달랐다. 2015년 11월에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 1.9% 하락해 낙폭이 컸고 외국인도 1조9000억원 주식을 순매도 한 반면, 2016년 5월은 지수가 하락했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다.(0.5% 하락) 외국인도 소폭 순매수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이유가 있다. 2015년 11월은 중국 증시 폭락과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이머징 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던 시기다. 2016년 5월은 신흥국 증시가 연 초 바닥을 치고 오름세로 반전한 이후다. 2016년 3월부터는 신흥국 주식에서 자금 유입됐다.

신한금융투자 강승철 연구원은 "현재까지 상황은 2016년 5월보다는 2015년 말과 더 비슷하다. EM 증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5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 A주 편입 이벤트 자체의 수급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어려운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식 매수를 주저케 하는 또 한 가지 핑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 안반기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은 MSCI보다 ▲미금리 상승 ▲글로벌 무역분쟁 ▲대의 정치 불안 ▲신흥국 불안 등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지난해 의견거절 상장사 25곳... 6곳 상폐

전년 동기보다 11개사 늘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가 32개사에 달했다. 이중 6곳은 이미 상장폐지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155개 상장법인의 2017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32개사로 전기보다 11개사가 늘었다. '의견거절'이 25개사, '한정'이 7개사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이 26개사(중복 계산)로 가장 많았고,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13개사, 회계기준 위반이 2개사였다.

이에 따라 적정의견 비율은 98.5%로 전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99.5%), 코스닥

(시장별 외부감사 의견 현황)

구분	2017 회계연도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적정(비율)	754 (99.5)	1,228 (98.3)	141 (95.3)	2,123	98.5
비적정	4	21	7	32	1.5
한정	2	4	1	7	0.3
의견거절	2	17	6	25	1.2
합계	758	1,249	148	2,155	100.0

단위: 사·%·%p /자료=금융감독원

(98.3%), 코넥스(95.3%)의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법인 25개사 중 6개사는 상장폐지됐으며, 나머지 19개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여부를 심사 중이다.

LH 도심지 내 산림형 공원 '그린 케어숲'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에서 산림청과 'LH 그린 케어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그린 케어숲'은 공사가 조성하는 생활권내 산림형 공원에 산림청이 보유한 다양한 숲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신개념 숲 사업이다. 도시민은 인근 숲에서 다양한 시설과 전문 프로그램으로 치유와 힐링, 숲놀이, 태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생활권 내 숲 자원을 활용한 다양

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용부담 없이 지속적, 주기적으로 치유와 힐링이 가능하다.

LH는 깊은 산악지역에만 조성·운영되던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그 첫 성과물이 산림청과의 협업을 통한 '유아숲 체험원'이다.

지난해 3월 LH와 산림청 양기관 협업을 통해 조성한 행복도시 원수산, 전월산 내 '유아숲 체험원'은 도심지 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공간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연계한 숲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미세먼지 등 걱정 없이 숲에서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숲숲과 자연이 가진 치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리·환경적 자원 여건을 모두 반영한 도심권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LH는 맞춤형 그린케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운영해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윤경은 KB증권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이형일 WM총괄본부장(네번째), 김동기 IPS본부장(왼쪽에서 첫번째), 김유성 Wrap운용부장(두번째)이 'KB able Account' 잔고 1조원 돌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KB 에이블 어카운트' 1년 만에 잔고 1조 돌파

낮은 가입금액·서비스 등 주요

KB증권은 지난해 7월 출시한 'KB able Account'가 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KBable Account'는 통합자산관리 플랫폼(UMA: Unified Managed Account)을 통해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외 주식은 물론 ELS, 펀드, 채권, ETF, 대안투자상품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서비스다.

KB증권은 상품 출시 후 불과 1년여 만에 잔고 1조원을 돌파한 배경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포트폴리오, 업계 최저 수준의 가입금액, 차별화된 운용 및 통합서비스 역량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본사·지점운용형 중 본사운용형 만으로도 잔고 1조원을 돌파해, 통합자산관리 플랫폼 기반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중 본사운용형으로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잔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문호 기자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 ③ 한명섭 변호사



“인권, 내정간섭 아니다... 北 재판은 요식행위 주변 압력보다 주민의 인권의식 자각이 중요”

피의자의 신병을 다루는 형사소송절차는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통일법률사무소 한명섭 변호사(사시 32회·연수원 22기)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년으로 펴내는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의 헌법과 형법 전반에 드러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인권 보호 대상이 모든 주민이 아닌 ‘일 하는 사람’에 한정된다거나, 기준이 모호한 형법체계는 인권 신장에 걸림돌이다. 지난 2일 ‘2018 북한인권백서’ 회의 직전 변형 인근 카페에서 만난 그는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워 민주주의를 일궈냈듯이, 국제사회의 압력보다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국제사회 비난에 변화

-2016년 백서에서 ‘북한은 인권에 대해 ‘철저히 내정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점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내정불간섭 원칙이 강조된다. 예를 들면 북핵도 내정문제다. 유엔(UN) 회원국이라면 국제 규범인 세계인권선언문을 준수해야 한다. 보면 기준에 맞춰진 규범을 두고 북한은 내정간섭이라고 한다.



한명섭 변호사가 2일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근대 초기 국가는 멀찍이 떨어져, 서로를 간섭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아파트 단지가 됐다. 아시아동, 유럽동처럼 붙어있다. 그런데 어느 집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하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 관리사무소와 학교 선생님, 이웃들이 나서야 한다. 그걸 내정간섭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요즘 북한이 내부적으로 법규를 바꾸면서

을 끊어 팔면 극형에 처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교통질서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포고문에 대해서는 변협과 국제사회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북한은 일단연구 없다가 내부적으로 바뀌었다. 긍정적인 변화다.”

여성 권리보장·아동 권리보장법 등 변화 ‘긍정적’ 北의 재판소, 판사 역할 별로 없고 변호인도 형식적 피고인의 무죄 주장·새로운 증거수집 기회도 없어

국제사회의 비난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개정헌법에는 ‘인권’이 처음으로 나왔다.”

-북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근로인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한다. 내용 그대로 노동하는 사람의 인권만 보호한다는 의미로 봐야 하나.

“그렇다. 2009년 헌법이 나오자, 일부는 북한이 드디어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고 봤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기존의 인권관에서 바뀌지 않았다. 북한은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인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달리진 점은.

“2010년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등 변화가 있어왔다. 포고문 역시 김정은 시대에 들어 바뀌고 있다. 특히 처벌 규정이 들어있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본다.”

-포고문이란.

“거리 곳곳에 붙이는 포고다. 입법부가 만든 형법이 아닌 인민보안성의 행정 명령이다. 우리로 치면 마약사범 특별 자수 기간 같은 개념이다. 예전에는 포고문에 협동농장에서 탈취하거나 구리선

법정공방 없는 형사재판

-북한 형법은 형벌 부과 기준이 행위가 아닌 위반 정도다. 그래서 법원이 위반 정도가 보통인 경우~극히 무거운 경우로 판단하면 가벼운 교양처분과 사형을 쉽게 오간다. 특히 죄형법정주의도 모호해서 사형이 쉽지 않다.

“정상이 극히 중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 마음이다. 내부적인 기준이 따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 측면을 보면, 구성요건을 달리 해야 한다. 현재 북한식 형법이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다.”

-장성택 처형도 같은 맥락인가.

“특별군사재판소에서 바로 결론이 나, 상고 할 기회가 없었다. 북한은 최고재판소에서 모든 사건을 1심으로 다룰 수 있다. 삼심제인 우리와 달리, 북한은 삼심 이심제다. 시·군인민재판소와 도재판소, 최고재판소 중에서 재판을 두 번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장성택의 특별군사재판소는 형사소송법에 없다. 인민보안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정치범은 최고재판소 판사들이 내려와 현지에서 재판한다.

일반적 형소법에 없는 재판이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처럼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절차가 북한에는 없다는데.

“수사원의 초동수사 이후를 담당하는 예심원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검사가 이를 발부한다. 법원이 영장 발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은 검찰이 피의자를 최대 20일 구속수사한 뒤 기소해, 기나긴 법정싸움에 돌입한다. 북한은 수사원이 범죄혐의자를 최대 10일 구금할 수 있고, 예심기간은 4개월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을 안 지켜 8개월씩 가둔 사례도 있다. 대신 재판이 단숨에 끝난다.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노동당원인 인민참심원이 재판 당일 피고인이 어떤 형량을 받게 될 지를 확인한다.

판사의 역할은 별로 없다.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니, 변호인도 형식적인 변론에 그쳐 의미가 없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과 새로운 증거 수집 기회가 없다. 북한에서 변호사는 반 공무원이다.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 안에 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조선변호사회가 사건을 배당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영향을 줄 방법은.

“가장 큰 동력은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다. 과거 유신 시절을 생각해봐. 국제사회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국민이 모르면 바뀌지 않는다. 북한은 현재 배급제가 붕괴돼 소유 개념이 생겼다. 정부가 메뚜기식 장사를 단속하면, 여기에 반발해 욕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여기서 조금씩 나아가 인권의식으로 이어진다.”

/글·사진=이범종기자 jaker@metroseoul.co.kr

한명섭 변호사는...

-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與野 3개 교섭단체, ‘폭염·혹한’도 재난에 포함키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의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폭염’이나 ‘혹한’도 재난 개념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법안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있다”며 “합의된 두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취지로 특별히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TF 회의 직후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공감대를 마련한 민생법안에는 재난에 ‘폭염’이나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도록 한 은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K뱅크의 경우 증거가 어려웠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취지”라며 “오늘 보유 한도를 놓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계속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해당한다. /연합뉴스

“D램시장 경쟁심화우려 과도 기존제기 전망의 반복 불과”

김동원 KB증권 연구원

KB증권은 7일 D램(DRAM) 시장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과도하다며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다.

김동원 연구원은 “지난 6일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외국계 투자은행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하향 조정) 이유는 4분기 데이터 센터용 서버 D램 수급 불균형 완화, 낸드(NAND)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 시장에서 제기된 전망의 반복에 불과하며 새로운 우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D램 선두업체들은 내년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격차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D램 시장 경쟁 심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최근 SK하이닉스 주가는 내년 삼성전자 공급증가에 따른 판가 하락 우려가 가중되며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내년 메모리 사업에서 수익성 위주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

국내 보험사, BMW에 구상권 청구소송 검토

보험사 해외車 브랜드에 첫 소송
3년 전 20건 이상 화재사고
포함하면 청구소송액 커질 듯

보험사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논의 중이다. 일반 청구 절차보다는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내 보험업계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BMW코리아가 사고 원인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면서 구상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년 전 BMW코리아가 '원인불명'으로 결론을 냈던 화재 사고까지 포함된다면 구상권 청구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국내 보험사가 BMW코리아를 상대로 구상권 청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MW 코리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 청구는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다. 쉽게 말해 갚을 돈을 갚았다고 대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

고 가 날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보장을 해주고 이후 보험사가 대신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올해 국내 BMW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32건이다. 이 중 대표 모

델인 520d 차종이 19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자기차량) 보험에 가입된 고객에 한해 보험금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6일 BMW코리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화재사고 원인을 밝히자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BMW코리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RG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온 것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공개하고 리콜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기술 결함 등 원인 증명이 어려워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차적으로 화재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는 보험사가 보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은 차에 문제

가 있었던 것인 데다 제조사(BMW)가 결함을 인정한 만큼 제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BMW 화재사고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20건 이상 발생했다. 당시 BMW코리아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제조사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화재사고 건 외에 과거 건까지 확인해 구상권 청구 소송에 포함할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 경우 청구 소송액의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화재사고의 보상 데이터를 분석해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중"이라며 "제조사의 결함 인정 범위에 따라 소송 규모, 소송 방법 등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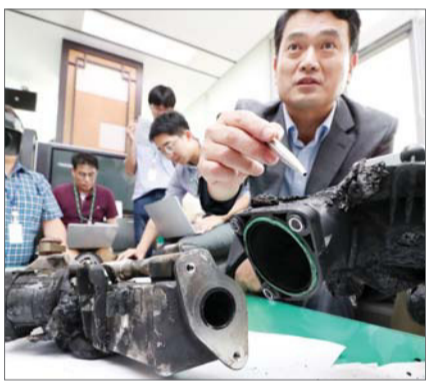
한계 드러낸 리콜제도...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국토부 "현행 3배 피해보상 보다 더욱 무거운 배상제도 방안 추진"
결함 은폐면 매출액 1% 과징금

정부가 BMW 차량의 화재 사태를 계기로 리콜제도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리콜제도 안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계획을 세우는 등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이 BMW측에 차량화재관련 조치를 요구한 뒤 목포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한 BMW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왼쪽)를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

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피해의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 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

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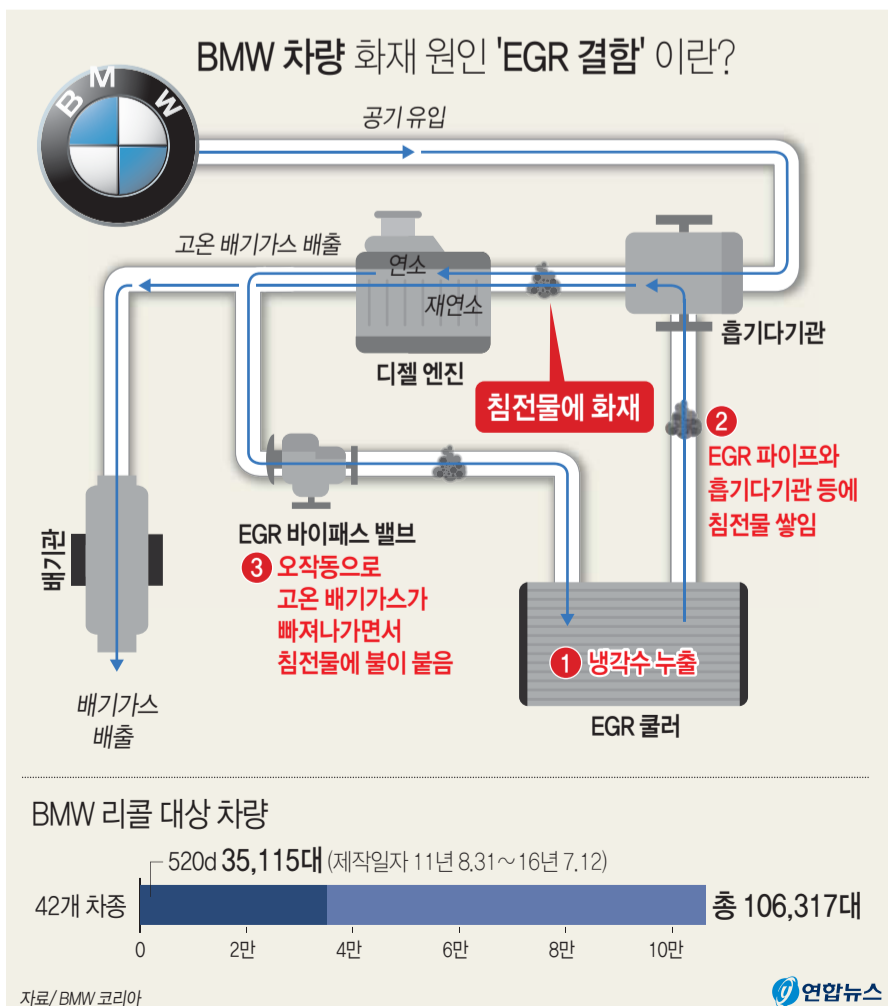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로도 이어졌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6일 30여차례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체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분석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미흡해 이번 BMW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연우 기자 yw964@



BMW 차량 화재 논란... 고객 악용하지 말아야

기지 수첩
양성운 (산입부)

김효준 BMW코리아대표는 지난 6일 최근 연속된 차량 화재와 관련해 대국민 공개 사과까지 나섰다. 김 대표는 "화재 사고를 겪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고객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BMW코리아는 BMW 본사 차량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프로젝트팀 10명을 투입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데 고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차량 결함은 물론 사고유무, 연식, 주행거리 등과 관계없이 신형 520d 차량 값으로 환불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BMW 서비스센터가 리콜로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고객과 서비스센터 직원간의

실감이가 이어지면서 차량 점검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최초 차량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를 감지했지만 안일한 대처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워온 BMW의 잘못이 가장 크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근 목포에서 발생한 520d 차량 화재의 원인은 어떤 부품의 문제인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차량 결함으로 소비자가 겪을 불편함과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 BMW코리아는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소비자들은 올바른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 ysw@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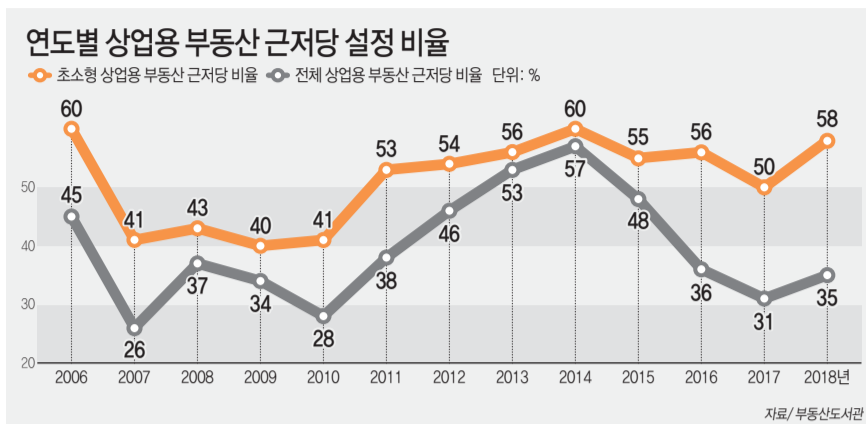


MASERATI
COLLECTION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건물 10곳 중 8곳 '근저당' 잡혔다

소형일수록 근저당 비율 높아
근저당 비율도 '채무성격' 가까워
상업부동산도 금리인상 대응해야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상업용 부동산의 76.5%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일수록 근저당 설정비율이 높았다.

7월 부동산도서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분기 까지 거래된 상업용 부동산 중 1만208건 중 매입자금 확보 및 금융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은 76.5% (7809건)로 집계됐다.

근저당이 없는 물건은 2255건으로 2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확인불가는 144건(1.4%)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총 거래금액에서 근저당 설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초소형으로 53%에 달했다. 이어 소형 51%, 중형 46%, 대형 33%, 프라임 13%의 순으로 조사돼 규모가 작을수록 근저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근저당 설정 비율은 2007년이

26%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 규제가 최고조에 달한 데다 조사기간 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5%로 가장 높았던 시기다. 부동산활성화 정책이 많았던 2014년엔 이 비율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표본은 1만208건의 실거래 건수로서 50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물이 7564건(74%)으로 가장 많았다.

초소형 상업용부동산은 조사기간 총 거래금액 17조5387억원 중 근저당 금액은 9조2592억원(53%)으로 집계됐다. 최근 8년간은 근저당 비율이 모두 5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 총거

래금액은 191조4191억원으로 2014년, 2016년, 2017년은 서울시 상업용부동산 연간 거래금액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I프라퍼트리 리서치센터 김현수 연구원은 "서울시 상업용부동산의 근저당 비율이 반드시 은행부채인 것이 아니라 채무성격에 가깝다고는 평가할 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상업용부동산 대출도 금리인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폭염에 타들어가는 농심... 수급안정 총력

110억 긴급투입... 냉방장치 설치
농진청 등 정부합동지원반도 운영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수리에서 한 농민이 논에 심어 놓은 대파가 폭염으로 말라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축산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부처 총력 지원에 나섰다. 약 11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배추·무를 재배하는 밭의 농업용수와 축사 냉방장치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안정 비상 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관정 개발, 간이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의 급수대책비 30억원을 지원했지만 폭염이 8월까지 지속되고, 당분간 폭염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강우가 없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48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사 내 냉방장비를 농가에 추가 지원한다. 축산분야의 경우 폭염 장기화로 6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453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축사용 냉방장비는 축사 내 온도를 낮춰 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장비 중심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로 구성된 5개반 55명의 정부합동지원반을 운영해 현장기술지원과 함께 농가에 필요한 장비가 신속히 지원되게 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국토부, 항공일자리포털 오픈

“뺏다 비행기, 뺏다 일자리” 8만개 한눈에

8만개의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포털이 8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의 일자리에 대해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 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항공운송사(50인승이하) 등은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렵고, 승무원 지방생들은 외국항공사 취업 시 사설학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과제의 하나로 정부주도 항공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해 왔다.

8일 오픈하는 항공일자리포털은 항공기업의 채용 정보를 상시 제공해 구직자가 항공산업 기업의 종합적인 채용정보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9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의 취업정보도 제공한다. 항공사별로 취업요강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면접경험 등도 게시돼 있다.

항공전문직종(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승무원 등) 취업가이드와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취업상담은 조종, 정비, 관제, 객실승무원, 공항, 항공보안 등 항공전문직종에 대해서 전문가 12명의 상담위원들이 이메일로 상담한다. 9월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종에 대한 진로탐색 정보도 준다.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객실승무원, 항공정비사 등이 되기 위한 자격취득 절차와 시험안내, 교육기관, 취업대상 기관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상가임대차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임차인-임대인 갈등원인 조사

권리금 > 임대료 > 계약해지 順

(2016년~2018년 6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분쟁유형) (단위: 건)

신청연도	계	권리금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계약갱신	원상회복	수리비	기타
계	193 (100%)	71 (36.8%)	26 (13.5%)	29 (15.0%)	20 (10.4%)	24 (12.4%)	10 (5.2%)	13 (6.7%)
18년 6월	72	22	9	15	3	11	6	6
2017년	77	21	15	9	14	10	4	4
2016년	44	28	2	5	3	3	0	3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이 총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8% 증가했다. 특히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로 꼽혔다.

7월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72건의 안건이 접수, 이 중 31건의 안건이 조정합의됐고, 현재 11건의 조정이 진행중이다. 제작년에는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2년 6개월간(2016년 1월~2018년 6월)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같은분야의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상담건수는

38% 증가했다.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을 분석한 결과 '권리금' 문제가 가장 큰 분쟁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유형 중 권리금이 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원상회복(12.4%), 계약갱신(10.4%), 기타(6.7%), 수리비(5.2%)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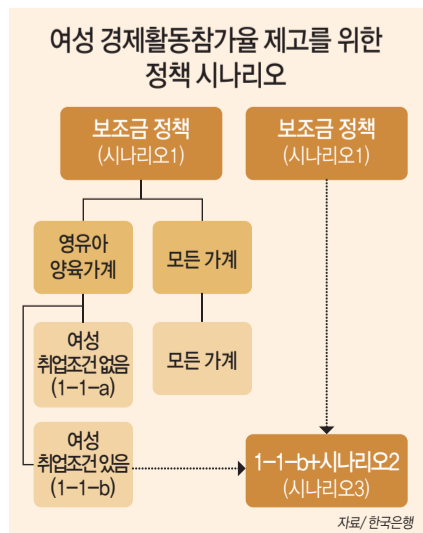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가 15.4%, 권리금 15.3%로 비스

하게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임대료 조정(13.6%), 법 적용 대상 여부(11.9%), 계약 및 재계약(8.3%)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이 현장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에 참여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여성 고용개선, 노동시장 구조개선부터”



한은 '기혼여성 경제활동 분석보고서' 여성 인력의 고용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분석(조사국 모형연구팀 이영재 과장·송수혁 조사역)'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각 정책의 한계가 서로 상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계를 이루고 자녀 수 등 가계의 다양성이 반영된 생애주기 모형을 설정해 분석했다. 기혼 여성 노동공급 확대방안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해 여성의 실효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인적자본 축적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을 고려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참치 지키러 전세계 과학자 한국 모인다

참치 자원 보존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인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제14차 과학위원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WCPFC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국제수산물기구로 다랑어류, 새치류, 상어류, 바닷새류, 바다거북류 등을 관리하고 있다. 고도회유성 어족은 2개국 이상의 연안국이나 국제 수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하여 회유하는 종을 말한다.

WCPFC가 관리하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은 전 세계 다랑어류(새치류 포함) 생산량 중 50% 이상(약 270만 톤)을 생산하는 최대어장이다. 우리나라도 이 수역에서 연간 약 26만 톤을 어획하고 있어

국내 원양어업 전체 생산량(2017년 기준 43만6000톤)의 60%를 차지하는 주요어장으로 꼽힌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랑어류, 새치류 등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총 19개 목표종과 부수어획종의 어획동향과 자원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12월 열리는 총회에 권고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과학위원회에서는 눈다랑어의 자원상태가 호전됐다는 작년 연구결과에 대한 추가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눈다랑어 자원상태 개선에 따른 어획쿼터 증대 권고도 출몰될지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 부지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확정

무주택자 맞춤형주택 3400호 공급
핀테크 등 미래금융산업 일터 조성
“국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준비”

성남시 금토동 일원 58만3,581㎡가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7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성남 금토(가칭,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청서를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첫 번째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규모가 공식 확정됐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확정된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시 금토동 일원에 위치한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 구역으로 나뉘며 1구역이 6만7,910㎡, 2구역이 51만5,671㎡다. 도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단과 대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금토지구) 조감도. /경기도

중교통 불편, 주거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판교를 살터(주거)와 일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살터에는 젊은 층과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약 3,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일터는 핀테크,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금융산업이 들어설 혁신클러스터와 ICT 첨단산업이 입주할 융복합클러스터, 문화·근린생활시설의

근린클러스터 등 3개 구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준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완료되는 2023년이면 판교 일대가 167만㎡ 규모 부지에 2,500여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하는 세계적인 첨단산업클러스터가 될 것”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가 국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이재준 고양시장, 사법행정편의 팔 걷어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촉구”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민의 사법행정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며 104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마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7일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 면적과 1,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임에도 5개의 지방이 있는 서울시와의 차이를 꼬려했다.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해 이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4,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은 “104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촉구하고 나선다. /고양시

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기북부 중심 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지속적 추가 유치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무안공항 경유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확정

2020년 착공·2025년 개통 목표
총 연장 259.9km·사업비 10.6兆



전남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확정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본계획이 변경된 2단계 노선은 나주역에서 무안공항역을 거쳐 목포역으로 향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지난 2015년 개통했지만, 광주송정 이남 구간은 노선협의 실패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광주송정에서 목포까지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해 고속열차가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광주송정역에서 나주 고막원 구간을 우선 고속화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신설 노선이 개통될 때까지 호남선을 계속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충북 오송역에서 전남 목포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의 총 연장은 249.1km에서 259.9km로 늘어난다. 총 사업비는 8조3220억원에서 10조6049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결정했다.

/전남 무안=김남경 기자 5555knj@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단가’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고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적정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에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는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성남시

자전거도로 킥보드 단속

성남시는 탄천 자전거도로 50.8km 구간에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의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땐 범칙금 4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도로교통법 13조(2011.6.8)’를 따른다. 관련법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스쿠터 등의 전동식 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 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 등에서 운행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일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4만원)을 경찰서에 내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전거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타다가 사고를 낼 경우 역시 차량으로 간주해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6월 27일부터 탄천 주요구간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시원한 山寺서 무더위 날리세요”

광주 북구 원효사 체험 프로그램 진행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심에서 가까운 전통 산사(山寺)를 찾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광주 북구는 오는 18일부터 10월까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무등산의 천년 고찰 원효사에서 전통 산사(山寺)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 산사(山寺) 문화재 활용사업’

은 문화재청이 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인 정신유산을 대중화·세계화해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구가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북구는 ‘원효사, 무등산을 품다 II’를 주제로 무등산에 위치한 원효사를 중심으로 ‘체험 한마당’, ‘마당극 퍼포먼스’, ‘무등산 보물찾기 여행’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인천중앙도서관

청소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인천중앙도서관(관장 양승옥)은 지역 주민들의 인문정신 고양 및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어린이 청소년 논픽션 큐레이션’을 주제로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 이상 인천 시민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부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그림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동



인천중앙도서관

화, 청소년소설, 논픽션 등 어린이 및 청소년 문학에 대한 탐색을 통해 좋은 책 선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됐다.

중앙도서관 담당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자기 계발과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조용한 괴물’들이 온다... 포르쉐도 할리도 ‘전기모터 시대’

(할리데이비스)

연료를 태우며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모터를 돌리며 운행하는 전기차에 이어 오토바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행거리는 물론 실내공간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오토바이로 확대되고 있다.

7월 업계에 따르면 할리데이비스, 폴라리스 등 오토바이 간판 브랜드들이 전기 오토바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할리데이비스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의 벤처업체인 엘터 모터스에 투자한 뒤 내년 중 전기 오토바이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의 인디언 모터사이클스도 할리데이비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기존에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한 기업들은 있었지만 간판 브랜드의 합류로 시장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슈퍼카 브

글로벌 모터사이클 브랜드

전기오토바이 출격 준비

포르쉐 내년 출시 ‘타이칸’

15분 충전에 400km 주행

랜드들이 합류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포르쉐와 페라리급 슈퍼카 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올 초부터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전기차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페라리 최고경영자도 전기 슈퍼카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 초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페라리 CEO는 “전기 슈퍼카가 있다면 페라리가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사람들이 테슬라 전기차를 보고 놀라워 한다”면서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르쉐는 내년 순수 전기차 모델 ‘타이



제네시스 에센시아 콘셉트카.

칸’의 출시를 앞두고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포르쉐 타이칸은 2개의 PSM 모터를 장착해 최고출력 600마력을 발휘하며,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 1회 완충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타이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5초 미만이 소요되며, 특수 제작된 800V 충전기를 통해

단 15분 만에 400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올리버 블루메 포르쉐 AG 이사회 회장은 “포르쉐는 브랜드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회가 될 주요 과제에 전기화, 디지털화 및 연결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차 타이칸을 시장에 선보이며, 미래

형 E-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 3월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전기 슈퍼카 ‘에센시아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에센시아 콘셉트카는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인 동적인 우아함을 재해석한 세련된 디자인과 향후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될 미래 기술력의 비전을 담았다.

현대차는 에센시아 콘셉트에 제로백 3초대라는 스포츠카 수준의 주행 성능 비전을 담았으며 인공지능 및 각종 커넥티비티 기술을 통한 운전자와 자동차, 교통 인프라 등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가 연결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적 규제에 의해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도 친환경 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오토바이 시장도 전기 오토바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셀트리온, 英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신청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CT-P17’

셀트리온은 최근 영국 의약품 허가 기관(MHRA)에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CT-P17’의 임상시험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영국에서 안전성과 약동학 평가를 위한 1상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한편 2018년 8월부터 유럽 등 8개 국가의 약 75개 사이트에서 글로벌 임상 3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3상 임상 완료 목표로 하고 있다.

‘CT-P17’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애브비의 ‘휴미라’는 류마티스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지난해 매출 약 20조원을 기록한 글로벌 매출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CT-P17’을 오리지널의약품의 변화된 고농도 제형에 따라 개발함으로써 이미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허가받은 경쟁 바이오시밀러와 차별화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CT-P17 임상 완료 후 이미 유럽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의 52%를 점유한 램시마, 2019년 허가를 목표로 임상 중인 램시마 SC와 더불어 TNF- α 억제제 제품군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TNF- α 억제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추경 출자사업 최종 선정결과)

단위: 억원·개

계정	분야	공고내역		조합수	신청내역		최종선정			
		모태출자(A)	결성목표		출자요청(B)	경쟁률(B/A)	조합수	출자요청	결성목표	
혁신모형	창업초기	일반	1,180~1,480	1,967~2,467	18	2,310	-	8	1,200	2,000
		루키*	200~500	333~833	11	1,325	-	4	480	800
	소계	1,680	2,800	29	3,635	2.16:1	12	1,680	2,800	
	혁신성장	1,120	2,800	6	2,440	2.18:1	2	1,000	2,520	
합계		2,800	5,600	35	6,075	2.17:1	14	2,680	5,320	

*신설창투사와 LCC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선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추경펀드’ 운용할 벤처캐피탈 14곳 선정

중기부 총 5320억원 규모

동문파트너즈, 이앤벤처파트너즈,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등 14개 벤처캐피탈(VC)이 8월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532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운용사로 뽑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스타트업들에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14개 VC는 모태펀드 자금 2680억원에 민간자금을 매

칭해 올해 11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선 출자예산 대비 루키리그(신설창투사, LLC 제한경쟁)에 우수 운용사들이 많이 지원, 배정된 1680억원 중 480억원이 루키리그에 선정됐다. 당초 루키리그에는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또 창업초기펀드는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지방투자 의무를 부여했지만 2개 VC가 지역투자 의무를 30%로 상향해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펀드를 통해 595억원 이상이 지방기업에 투자돼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활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푸드 신사옥 이전... ‘통합경영 시대’ 선포

양평동 신사옥으로 통합 이전

업무시너지·경영효율 향상 기대

롯데푸드가 본사 사무실을 한곳에 모아 통합 경영 시대를 언다.

롯데푸드는 지난 6일 본사를 통합 이전하고 입주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푸드는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10(영등포구 양평동 5가 21번지)에서 영등포구 양평로 19길 19(양평동 4가 23-2번지)로 본사를 이전했다. 신사옥은 구(舊) 롯데중앙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9층 건물로 기존 본사에서 한 블록 가량 떨어진 위치다.

기존에 롯데푸드는 양평동 롯데양평빌딩 3개층과 근처 빌딩 등에 일부 부서가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한 지붕 아래로 불러 들이게 됐다. 롯데푸드는 이번 이전을 통해 업무 시너지를 높이고 경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롯데푸드 신사옥은 대지면적 4360㎡(1319평), 연면적 1만7475㎡(5295평) 9층 건물로 기존 롯데푸드가 사용하던 사무공간보다 2배가량 넓다. 한층 넓어진 공



지난 6일 롯데푸드 사옥 이전식에서 이영호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롯데푸드



롯데푸드 신사옥 전경. /롯데푸드

간을 제품개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옥 1층에 푸드 솔루션 센터, 쿠킹스튜디오, 유지연구 BETERA, 커피LAB 등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개발실’을 추가해 국내 대표 종합식품회

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또한 ‘안전 경영 실험실’을 마련해 식품 안전 관리 역량도 높였다.

직원 친화적인 부분도 강화했다. 각 층마다 직원 휴게실을 마련하고, 따로 5층과 7층에는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라운지와 라이브러리를 배치했다. 여직원 휴게실과 직원 식당도 따로 마련했다. 1층에는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로비 및 접견실을 배치해 고객 친화성도 높였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본사 이전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며 “향후 통합 신사옥에서 국내 대표 종합식품회사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휴온스

어린이 해열제 ‘이지쿨 시럽’

휴온스가 ‘덱시부프로펜(Dexibuprofen)’ 계열의 스틱형 어린이 해열제 ‘이지쿨 시럽(사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지쿨 시럽’은 빠른 해열 효과와 긴 약물 지속 기간이 장점인 ‘덱시부프로펜’ 계열의 어린이 해열제로, 휴온스만의 ‘용해성 및 안정성이 향상된 덱시부프로펜 시럽 제제’에 대한 특허기술(출원번호: 10-2018-0013506)을 적용해 기존 덱시부프로펜 시럽의 복용 시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 /박인용 기자



바이오일레븐 아이 면역력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 출시

바이오일레븐이 성장기 유소아 어린이의 장 면역력 강화를 위해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사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은 어린이 전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서, 생후 13개월 이상 유소아의 장내 환경을 고려해 장 정착력과 생존력이 강한 락토바실러스 4종과 비피더스 3종 등을 함유했다. 매일 공복 상태에서 1회 1포를 물이나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스틱형 분말 타입이라 휴대와 보



관이 간편하고, 제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천연 바닐라향을 담아 섭취가 용이하다.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은 식약처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장 면역을 조절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개별 인정받은 ‘드시모네 포뮬러’를 원료로 한다.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 제품은 드시모네 공식 사이트와 11번가, GS샵, 롯데닷컴 등 주요 온라인몰을 비롯해 현대백화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이런 맛 처음이야” 식품·외식업계, 이색 컬래버 눈길

쥬스떡볶이+던킨도너츠
떠먹는 떡볶이 도넛 ‘새 맛·식감’
크리스피크림도넛+롯데제과
칙촉·꼬깔콘·빠다코코넛 도넛 등
롯데제과+굽네치킨
‘도리토스 갈비천왕 치킨맛’ 출시



치토스팝(왼쪽부터), 복숭아곤약젤리설빙, 떠먹는 떡볶이 도넛.

/각사

식품·외식업계에서 전혀 다른 장르가 만나 새로운 맛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컬래버레이션이 눈길을 끌고 있다.

7월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협업을 통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나, 혹은 ‘실수’가 아닐까 생각할 법 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주고 있다. 떡볶이와 도넛, 도넛과 과자, 또는 치킨과 과자, 아이스크림과 마카롱 등 그 조합의 형태도 다양하다.

최근 쥬스떡볶이와 던킨도너츠는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떠먹는 떡볶이 도넛’을 선보였다. ‘뭔가 잘못된 도넛’이라는 콘셉트를 가진 떠먹는 떡볶이 도넛은 매콤

한 떡볶이와 달달한 도넛을 한꺼번에 먹던 중 도넛을 떡볶이에 빠뜨려 새로운 맛과 식감을 발견했다는 스토리에서 출발한 제품이다. 매콤달콤한 쥬스떡볶이의 소스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와 한 입에 먹기 좋은 쫄쫄쫄쫄한 먼치킨 도넛이 어우러져 이 전의 떡볶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맛과 식감을 나타낸다.

인기 과자와 만난 도넛도 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롯데제과의 대표적인 제품과 결합한 ‘베스트 컬래버’를 선보였

다. 이 제품은 롯데제과의 달콤하고 바삭한 맛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도넛 3종과 한입으로 즐길 수 있는 도넛팝 1종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도넛 3종은 촉촉한 초코쿠키에 큼직한 초코칩이 박혀있는 달콤한 ‘칙촉 도넛’과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으로 스낵 판매량 1위로 꼽히는 과자를 구현한 ‘꼬깔콘 도넛’, 고소한 버터와 달콤한 코코넛이 조화로운 ‘빠다코코넛 도넛’이다. 또한 동그란 도넛을 한입으로 즐길 수 있는 도넛팝으로 자극적이면서도

중독적인 맛과 재미난 캐릭터가 인상적인 ‘치토스팝’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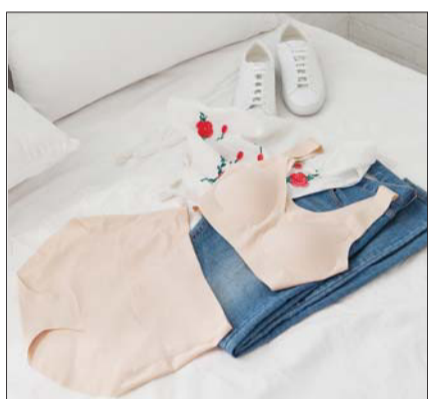
롯데제과는 굽네치킨과 함께 나초 스낵 ‘도리토스’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굽네치킨의 인기 제품인 ‘굽네 갈비천왕’과 결합한 ‘도리토스 갈비천왕 치킨맛’이다. 롯데제과는 ‘굽네 갈비천왕’의 맛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서 출시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제품의 맛에 신경을 썼다. 해당 제품의 전용 시즈닝을 개발하고 블라인드 테스트와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의견도 적극 수용했다.

마카롱 브랜드로 자리잡은 마리웨일이 해태제과와 만나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했다. 마리웨일은 아이스크림 ‘바밤바’의 맛을 그대로 담은 마카롱을 시원한 음료로 재탄생한 아이스음료다. 고소한 밤에 달콤한 꿀맛이 특징인 기존 바밤바에 마카롱의 쫄쫄한 식감이 더해졌고, 아이스크림을 더 시원하게 음료로 마실 수 있어 세트 제품으로 즐겨도 손색이 없다. 설빙은 다이어터들도 부담 없이 디저

트를 즐길 수 있도록 ‘설빙 워터젤리’로 유명한 글램디와의 협업을 통해 ‘복숭아 곤약젤리설빙’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탱글탱글한 식감의 글램디 4mm 자두맛 곤약 워터젤리와 달달한 백도 복숭아, 말캉말캉한 코코넛 젤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며, 생백도 복숭아를 통째로 올린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열량이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높은 ‘곤약젤리’를 넣어 여름 다이어트 간식으로 안심맛춤인 착한 칼로리의 빙수 메뉴다. 설빙은 시리얼 브랜드 켈로그와 ‘첵스초코설빙’도 출시했다. 시리얼 첵스초코는 첵스모양의 초콜릿 맛 시리얼로 다섯 가지 곡물로 만들어져 영양도 풍부해 어린이들은 물론 젊은 층들의 간식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첵스초코 특유의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그대로 활용, 기존의 초코빙수에 비해 달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첵스초코뿐만 아니라 티라미수 비주얼을 연상시키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겹겹이 올려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metrosoul.co.kr

안입은 듯 편하게... ‘퓨징 브라톱’ 인기

비비안, 판매량 전년비 160% 증가
자극 덜해 래쉬가드 속옷으로 적절



비비안의 퓨징 브라톱과 팬티. /남영비비안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민소매 티셔츠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브라톱’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무봉제 접착방식으로 봉제선을 최소화한 ‘퓨징 브라톱’이 인기가.

7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영비비안의 ‘비비안’에서 출시한 퓨징 브라톱의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와 비교해 160% 증가했다.

퓨징 브라톱은 와이어와 후안아이기가 없어 피부 자극이 덜하며, 얇은 티셔츠 안에 입어도 속옷이 드러나지 않아 깔끔한

실루엣을 연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래쉬가드 안에 입기에도 적절하다.

또한 안정적인 착용감도 인기에 한 몫 했다. 앞부분에는 형태가 잡힌 컵이 있

고, 등 부분에는 브라지어의 날개 역할을 하는 신축성 있는 밴드가 있어 가슴 전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밋밋한 가슴라인이 걱정된다면 볼륨 패드를 넣어 조절할 수도 있다.

비비안이 퓨징 브라톱과 함께 출시한 팬티 역시 봉제선이 없어 얇은 스커트 안에 입기 좋다. 뒷배 부분에는 신축성 좋은 파워네트 원단이 군살을 잡아줘 보정 효과도 느낄 수 있다.

남영비비안 디자인실 강지영 팀장은 “요즘 같이 더운 날에는 얇은 티셔츠 안에 브라톱 하나면 간편한 패션이 완성된다”며 “움직임이 많은 야외활동을 할 때 브라톱을 챙겨 입으면 좀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숙성 한우 맛보세요” 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정육코너에서 모델들이 액체화시킨 소고기 지방으로 감싸 숙성시킨 ‘탈로우 에이징’ 한우를 선보이고 있다. 탈로우 에이징 한우는 일반 드라이 에이징 한우보다 손실되는 고기가 적어 저렴하다. /연합뉴스

유럽서 맛보던 ‘납작 복숭아’ 국내 출시

상하농원, 고당도·수분함량 높아

매일유업 관계사인 상하농원이 오는 16일 유럽에서만 맛볼 수 있던 ‘납작 복숭아(사진)’를 국내 단독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3일간 특가상품 4100개 ‘위메프 88데이’

위메프는 오는 9일 밤 11시 59분까지 3일에 걸쳐 총 4100여 개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위메프 88데이’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매일 자정에 새롭게 공개되는 ‘위메프 88데이’의 주요 특가 상품으로는 ▲카카오 선물기 88원 ▲불스윈 선바이저 방향제 88원 ▲마이담 패키지 (50개) 88원 ▲나이키/아디다스 반팔 티셔츠 88원 ▲해피머니 1천 원권 88원 ▲쿠쿠 6인용 밥솥 888원 ▲리빙웰 에어프라이어 888원 ▲메디케어와이드헤드 칫솔 888원 ▲UV-LED 모기 해충 퇴치기 888원 ▲대웅 써클레이터 888원 ▲지니핀 네일 베스트 모

납작 복숭아는 복숭아를 위에서 꼭 눌러 납작해진 모양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으로 복숭아의 한 종류다. 정식 명칭은 ‘산복숭아(Bergpfirsich)’로 유럽인들은 이 복숭아의 모양에서 착안해 ‘UFO 복숭아’, ‘도넛 복숭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 복숭아보다 훨씬 단 맛을 자랑하는 납작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아 베어 무는 즉시 터지는 과즙을 느낄 수 있으며, 과육이 매우 부드럽고 연한 것이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



음전 888원 ▲호주 청정우 구이용 400g (안창 200g+차돌 200g) 6888원 ▲코코도르 디퓨저 1+1(리필형) 8888원 ▲아모레퍼시픽 균일가 8888원 ▲화이트 클린 생리대 4팩+1 8888원 ▲TCL 32형 HD TV 1만8888원 등이 있다. /김민서 기자

불티나게 팔린 ‘간편식 냉면’

CJ제일제당, 7월 매출 100억

CJ제일제당은 자사 간편식 냉면이 지난 7월 한 달 간 100억원 이상 팔리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간편식 냉면으로 월 매출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업계 최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이상 성장했고, 지난 6월 역대 최고 매출이었던 8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성과에 힘입어 올해 성수기 매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냉면 성수기 기간 동안에 만 250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2년 전인 2016년 성수기 매출보다 무려 30% 가까이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냉면 소비가 줄어드는 8월에도 매출은 고공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같은 성과를 무더위에 외식보다 집에서 간편하게 냉면을 즐기려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점 수준의 냉면을 맛 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간편식 냉면은 1인분에 약



2000원으로 냉면 전문점 가격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차별화된 맛 품질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은 것도 성과에 한 몫했다.

동치미물냉면은 평안도식 정통 냉면 레시피를 구현해 제주시 겨울 무와 배추·고추·과일·무청 등을 함께 15일 동안 숙성해 깊고 시원한 육수의 맛 살린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 새롭게 선보인 ‘평양물냉면’은 서울에서 유명한 한 평양냉면 맛집과 육수 맛이 유사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인기를 끌었다.

김지은 CJ제일제당 신선마케팅담당 브랜드매니저는 “스테디셀러인 ‘동치미물냉면’ 육수의 시원함을 강조하기 위한 ‘시원함이 다르다’ 캠페인의 효과와 신제품 ‘평양물냉면’의 성공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전자랜드프라이스킹

31일까지 ‘TV 슈퍼스타전’
캐시백·포인트 2배 등 혜택

전자랜드프라이스킹은 오는 31일까지 ‘TV 슈퍼스타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랜드는 롯데제휴카드로 삼성전자 QLED TV·LG전자 OLED TV 전 모델을 36개월 할부 결제 시 무이자 혜택 및 10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의 55형 이상 TV 구매 시 삼성카드 및 신한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하면 사용한 포인트의 2배를 오는 9월에 환급해 준다.

이밖에 삼성전자·LG전자 TV에 한해 65형 이상과 32형을 동시에 구매하면 10만 전자랜드 마일리지, TV와 아나라이프 안마소파를 동시에 구매하면 5만 전자랜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다가오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TV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던 고객들이 풍성한 혜택과 함께 쇼핑하실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현대제철 10년째 봉사 “해피에스로 이어갑니다”

대학생 봉사단 ‘해피에스 10기’ 첫 발

현대제철 대학생 봉사단 ‘해피에스’가 지난 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용인 씨닝리더십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봉사활동 시작을 알렸다.

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해피에스는 ‘봉사는 나의 행복(Happy)이며 주변의 어려움을 돕는데 주저 없이 예스(YES)라고 하며 달려간다’는 신조 아래 지난 2009년 1기 발족을 시작으로 올해 10년째 쉬 없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손수레 제작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봉사단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20대의 손수레를 제작해 순천시 9개 읍면동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으며 조별로 실시할 자율 봉사활동도 기획했다.

자율 봉사활동은 폐지 수집 어르신 돕기,



현대제철 대학생 봉사단 ‘해피에스’가 지난 2일 자신들이 만든 안전한 손수레와 함께 기념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현대제철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손수레 제작과 관련된 네 용들을 지역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지(해피에스 10기, 한국의국어대 4학년) 봉사단원은 “우리가 직접 만든 안전한 노랑손수레가 폐지 줍는 어르신께 바로 전

달돼 사용된다고 하니 굉장히 뿌듯하다”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아산나눔재단

교육관계자에 기업가정신 가르친다

아산나눔재단이 ‘기업가정신 레츠고(Let’s Go)’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레츠고는 아산나눔재단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가정신 교육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총 28회에 걸쳐 기업가정신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는 아산나눔재단을 비롯해 기업가정신 전문 교육기관인 ‘오이씨랩(OEC LAB)’,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이그나이트스파크(IgniteSpark)’, 디지털 교육기관 ‘디지털리더십교육협회’, 교육경험 디자인 전문그룹 ‘더플레이컴퍼니’ 등이 참여하며, 수업 별 교육 내용은 대상 및 진행 주체에 따라 모두 다르게 구성된다.

오는 8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모두가 행복한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및 교육관계자 대상 교육을 시행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쌍용차 오토캠핑 ‘사운드오브뮤직’ 개최

쌍용자동차가 음악을 주제로 매년 고객들과 함께해 온 패밀리 오토캠핑 ‘사운드오브뮤직’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더해 업그레이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쌍용차 사운드오브뮤직캠프 포스터. /쌍용차

제휴 캠프탈사인 SY오토캐피탈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8~9일과 15~16일(각 토·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시 소재 오토캠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야간에는 사운드오브뮤직의 하이라이트인 포리스트콘서트가 각 행사의 콘셉트에 가장 어울리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진행되며, 시원한 맥주와 다양한 간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양성문 기자 ysw@

금호타이어 새로운 비상대피도 안내광고 선택

금호타이어가 전국 멀티플렉스 CGV에 신규 비상대피 안내광고 ‘탈출 유니버스’ 편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신규 광고는 지난 7월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전국 CGV에 교체가 완료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0년부터 CGV와 함께 캐릭터 ‘도도’, ‘로로’를 활용한 극장 비상대피도 안내광고를 집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고객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

고 브랜드 호감도를 높여 왔다. 이번 광고 역시 전편인 몬스터 편, 우주비행사 편, 분노의 도로 편 등에 이어 흥행 영화의 소재를 활용해 친근함과 재미 요소를 강조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탈출 유니버스’ 편은 금호타이어의 캐릭터인 ‘도도’, ‘로로’와 함께 다양한 좀비 캐릭터들이 3D 영상으로 구현됐다. 영화 ‘부산행’을 패러디해 ‘도도’와 ‘로로’가 기차 내에서 좀비들의 공격을 피해 빠져 나오는 내



금호타이어가 제작한 CGV 비상대피 안내광고 메인컷 /금호타이어







용이다. 이번 광고는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들과 ‘안전한 탈출’이라는 스토리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8일 (음 6월 27일)

http://www.saju4000.com

-  48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60년생 다정다감 지나치면 병이나 가족에게 잔소리를 삼가라. 72년생 조급함이 화를 부른다 느긋하게 행동. 84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대립으로 마음이 불편.
-  49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61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미뤘던 일을 마무리. 73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는 날. 85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떨어지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  50년생 마음이 우울하나 자식이 기쁜 일을 알려준다. 62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한 하루. 74년생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86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  51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의 인격을 높여준다. 63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는 더 어려운 난처한 하루. 75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 87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자.
-  52년생 손님이 반가운 소식을 들고 오니 하루가 즐겁다. 64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라. 76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나 결실을 이루게 된다. 8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활보하는 격이니 매사 신중할 것.
-  53년생 오랜 적선이 나에게 돌아온다. 65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77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다. 89년생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는데 갈피를 못 잡는다.

-  54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66년생 후배가치고 올라오니 서글픈 마음이 든다. 78년생 천년을 가는 사랑을 느낀다. 90년생 자신의 특기를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게 한다.
-  55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67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야 한다. 79년생 구름 속의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 91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피서를 떠나 기분전환.
-  56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8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조언으로 해결. 80년생 남의 도움을 받으라 시비도 있을 수 있다. 92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하다.
-  57년생 성공이 지척인 듯 하나 마음만 바쁘다. 69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시작해 보자. 81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생기기 한 단계 상승할 운. 93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  58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70년생 오늘 준비를 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이다. 82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더 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94년생 먹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날.
-  59년생 작은 흙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71년생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변하니 영원한 것은 없다. 83년생 강을 무사히 건넌다면 배도 소중히 간직. 95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3			6		4	
4			6		3	1		
			4					
6	7			3	5			
5	1					9	3	
7	8			3				
		4	5	2		8		
1	2	4						

	8	5						
			9			1		
	3	6	4	5			9	
						9	7	5
5				2				6
					6	2	1	
	4	9	6	3			7	
			1				3	
1	8							

스도쿠 정답								
6	8	9	8	7	2	5	1	
1	9	8	2	3	5	6	4	
5	7	2	1	4	6	9	8	
4	6	7	2	9	8	1	5	
8	2	5	4	6	1	2	9	7
9	1	5	7	8	4	2	6	
2	1	4	6	9	2	5	7	8
7	5	9	8	1	4	6	2	
2	8	6	7	5	2	1	4	9
6	2	9	5	7	1	8	1	4
8	7	4	2	6	1	2	5	9
1	2	5	8	4	9	6	7	2
7	1	2	9	1	5	4	6	8
9	8	6	7	2	4	1	2	5
4	5	2	6	1	8	2	9	7
2	6	8	2	5	7	9	4	1
5	9	1	4	8	6	7	2	1
1	4	7	1	9	2	5	8	6

문제 제공 = 보너스

직장 어린이집 확대로 女 경력단절 예방



오지연
여성담당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력 단절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더 나아가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령을 변경하고, 이 법을 토대로 정부부처별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용노동부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직장어린이집 지원, 공공보육시설 운영 관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에게 최고 7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자녀 양육

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등 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대우가 좋은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대형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은행 내부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5만9757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은 831명으로 조사되어, 이는 임직원 71.90명당 1명의 자녀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은 KEB하나은행이 8개이며, 다음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4개씩 운영, KB국민은행은 2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다. KB국민은행은 1만7675명의 임직원에게 어린이집 정원은 111명으로 159.23명당 1명의 자녀를 직장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우리은행은 94.37명, 신한은행

은 68.65명, KEB하나은행은 37.45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해,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근무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일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에는 출근 시간이 빠르고 퇴근시간은 늦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유연 근무제 시행으로 늦게 출근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퇴근이 늦어져 일반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육아문제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정부 지원 사업이 형식주의가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직장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민대 국제비서과 교수



중진공-전북도,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맞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라북도 7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진공과 전북은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 ▲혁신성장 시설투자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수출 및 글로벌진출 지원 확대 ▲기업혁신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한국증권금융,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와 MOU 체결

한국증권금융은 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와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한-캄보디아 금융서비스 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양 기관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임직원 교류, 증권금융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담고 있다.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왼쪽 세번째)과 소우 쓰치엣(Sou Socheat) SECC 사무처장(네번째)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노후준비



오상열
행복한 금융잡짓기

이 계층의 분들의 고민은 인생최대의 고민인 노후준비입니다. 노후는 모든 세대의 공통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목적자금처럼 준비하면 좋고, 준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대학 스스로 하고, 결혼도 알아서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노후준비가 안되면 끼니를 거르고,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도 자녀의 사업자금이나 대출상환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노인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의 지급형태를 보면 순수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것은 전건중에 수천건에 해당하며 일시금으로 수령한 건수가 20만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퇴직이 가까운 중년의 서민층

과 중산층들은 목돈으로 써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녀지원, 주택, 대출, 생활비 등으로 한시도 여유가 없습니다. 중산층보다 조금 더 나은 자산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경기가 침체이다보니 매출이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 집니다 어느 곳도 여유있는 곳이 없습니다. 큐브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만큼 모든 세대에서 가장 안정적인 계층이기도 합니다.

부부가공무원이거나선생님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산가 계층에 비해서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노후에 대한 걱정과 자녀지원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에 가장 많은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품위유지에 들어가고 모임에 참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철저한 노후준비가 금융잡짓기의 핵심입니다.

특히 청년 퇴직하신 분은 자발적인 퇴직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하면 회사에 의해서 강제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 240만원까지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사회는 나이를 가지고 취업을 결정할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직장에 있을 때 퇴직이후를 생각해서 반드시 제2의 취업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플랜B를 준비하지 않으면 산에서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 잘못된 좀비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목적자금과 대출상환이 핵심이 됩니다.

집을 한 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다른 하위세대보다는 조금은 낮지만 여전히 대출이 많은 상태이다. 보편을 체크하여 3대질병의 위험과 치매간병에 대한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노후에 대한 추가적인 저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다만 주택연금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은 여전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을 먼저 다 갚고 나서,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할 필요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금액을 줄이면 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만이 진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이 세대는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잡짓기 설계가 매우 효율적인 세대이기도 하다.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KRX국민행복재단, KRX DREAM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KRX국민행복재단은 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2018년 KRX DREAM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서울·부산지역 중학생 40명과 전국 특성학교 고등학생 50명을 KRX DREAM 장학생으로 신규 선발했으며, 장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맨뒷줄 왼쪽부터 여덟번째), 이일순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아홉번째)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RX국민행복재단



롯데, 라오스 재난 구호에 10만 달러 기부

롯데는 지난달 댐 붕괴 사고로 발생한 라오스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활동을 위해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를 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서 굿네이버스 김인희 부회장(왼쪽부터), 롯데지주 오성엽 커뮤니케이션실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연순 사무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

인사

◆병무청 ◇과장급 승진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윤주봉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401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09호

- ◆한국전기연구원 △기획조정부장·경영지원부장 겸임 최동철 △기술사업화부장 설동호
- ◆KR선물 ◇전무 승진 △준법감정부장 안종백 △전략기획본부장 서지석 △경영지원본부장 이국진
- ◆전남 담양군 ◇4급 승진 △지속가능전략국장 신성호 ◇5급 승진 △남면장 정선미 △의회전문위원 김병규 △녹색관광과장 고진성 △대전면장 이광석 △주민행복과장 이정희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중구 △열린민원과장 조기양
- ◆국제신문사 △영입총괄이사 변영상
- ◆스포츠클럽 △방승연에팀장 홍영준
- ◆업다운뉴스 △사회부장 윤지환

부음

▲김승구 씨 별세, 김상원(한화갤러리아 센터시

티 사업장장)·상용·문정 씨 부친상, 어재준 씨 장인상, 이주영·강정숙 씨 시부상 = 6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02-2072-2018)
▲임정목 씨 별세, 정승진(전 한화 이글스 대표이사)씨 장인상 = 6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낮 12시 30분(02-2019-4000)
▲김고산씨 별세, 김경주(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림부팀장)·경일(자영업)씨 부친상, 강명승(대신증권 강남선릉센터 영업이사)씨 장인상=7일, 전남목포 효사랑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61) 242-7000
▲유사순 씨 별세, 김인태(정읍시 부시장)씨 장모상 = 7일 오전 6시, 전주뉴타운장례식장 401호,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10-6575-2625)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씨 병부상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02-3410-3151)



NS홈쇼핑, 택배기사에 사랑의 생수 4만개 전달

NS홈쇼핑이 지난 3일 주요 거래 택배사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각 사에 생수 4만여 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NS홈쇼핑의 '사랑의 생수'는 폭염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올해로 14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NS홈쇼핑 SCM팀 김편규 팀장(왼쪽부터 차례대로), CS본부장 김기환 상무, 제일 오른쪽 CJ대한통운 정기호 상무. /NS홈쇼핑

현 중3, 내신·학종·수능 ‘지옥의 트라이앵글’ 강화되나

2022 대입제도 개편 해설

주요과목 상대평가·수능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도 대학 자율
선발비율 등 고2까지 ‘혼란’ 예상

현 중3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4년 뒤에도 수험생들은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주요 과목의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수능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해 수능의 대입에서의 변별력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선발비율·수능최저 고2까지 기다려야 ‘혼란 여전’

7일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종합해 보면, 정시 모집은 확대되고, 그 비율은 대학이 정하도록 했고,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역시 대학 자율이다. 수능은 현행 상대평가 기초속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에서 수능위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형 선발 비율을 정하지 않기로 해 안갯속이다. 현 중3의 경우 대학별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고2가 될때까지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은 당초 국가교육회의가 의제1에서 ‘수능전형 4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2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오차범위 안에서 1,2위로 나와 단일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만약 의제1이 채택됐다면 수능전형 45% 이상을 권고했을 것으로 보여, 수능전형의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시민참여단의 일반대학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 수능위주전형이 ‘40~50%’(27.2%)가 가장 많았고, ‘30~40%’(21.2%)로 나타났다. 누적통계기준으로 보면 응답자의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봤고, 47.3%는 40% 이상을 선택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치는 약 39.6%로 나왔다. 올해 대입에서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은 20.7%로 2020학년도에는 19.9%로 소폭 준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수능위

주전형의 비율이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위가 지난 3일 이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은 수능위주전형이 45% 이상은 너무 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고, 입시 전문가들 또한 40% 내외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 설립목적이거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총원난 등을 고려해 수능위주선발 비율의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설립유형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등 대학별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달리하는 최종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수능 국·수·탐구 ‘쓸림 현상’ 커질 듯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권고해 현행처럼 대학·모집단위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들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학생부위주전형을 치르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처럼 국어, 수

학, 탐구 선택과목 등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제2외국어 절대평가의 경우 그동안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로 절대평가 시행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부 과목 절대평가의 경우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때처럼, 상대평가 과목에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해당 과목 사교육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 직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공론화결과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방안 등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두 담고자 하는 국민적 고뇌가 공론화 과정과 결과, 이번 최종 권고안에 두루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8월 안에 차질 없이 대입개편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중앙대 ‘다빈치 봉사단’

印尼서 한국어 교육봉사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재학생 봉사단체 ‘다빈치 사회문화봉사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Universitas Nasional(이하 UNAS)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주간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봉사는 한국어교육, 태권도, K-Pop, 전통공예수업 등으로 이루어지며, UNAS 학생들로부터 인도네시아어와 전



동문화를 배우는 등 상호간 이해를 위한 교류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희웅 학생(사회복지학부)은 “그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봉사활동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세종대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청년인재 일자리 연계 사업’의 인재양성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달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동국대에 1000만원 기부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지난 6일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가 한태식 총장을 만나 학생단체인 ‘동국108리더스’를 위해 써 달라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는 2010년 11월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개원했으며 간화선 수행과 템플스테이, 선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기부는 평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스님(오른쪽)이 지난 6일 한태식 동국대 총장을 만나 1000만 원을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

램을 통해 동국108리더스와 인연을 맺어온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가 해당 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다. /한용수 기자

구직자 10명 중 8명 “수능보다 취업이 ‘더’ 힘들다”

사람인 구직자 301명 설문조사

더 어려운 이유 “정답 없기 때문에”
“수능때로 돌아가고 싶다” 61.8%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취업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람인이 수능시험 경험이 있고,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1%가 ‘취업준비가 수능시험 준비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취업준비가 더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로는 수능시험처럼 ‘정답이 없기 때문에’(58.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수능 점수와 달리 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55.9%), ‘스트레스 강도가 더 세서’(43.3%),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서’(42.9%),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42.9%),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29.1%) 등이 있었다.

실제로 ‘취업준비를 하는 지금보다 수능시험을 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구직자는 61.8%였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취업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61.8%)가 가장 많았

고, 이어 ‘취업준비보다 차라리 입시준비가 나은 것 같아서’(37.6%), ‘전공으로 인해 입시지원하기가 어려울 때’(37.1%), ‘전문직이 고용안정성과 보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30.6%) 등의 순이었다.

또 직장인들은 다시 수능을 치른다면 공과대학(27.4%)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학대학’(25.3%), ‘경영대학’(9.7%), ‘사범대학’(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이공계 계열 채용규모가 크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인재 수요 급증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용수 기자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 창업 설명회 실시

금성출판사는 푸르넷 공부방이 8월 한 달 간 전국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푸르넷 공부방은 금성출판사의 53년 노하우가 축약된 초·중·고 대상 전과목 학습기관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다. 특히 재택근무와 육아, 가사를 병행할 수 있어 경력단절여성이나 가정주부 사이에서 제2의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금성출판사는 8월 한 달 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시도에서 푸르넷 공부방 시스템 소개와 교육사업 관련 정보 등 창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연다. 4년제 대학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푸르넷 공부방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일정을 확인하고 전화로 접수하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푸르넷 공부방은 가맹비가 없고 공부방 개설 시 필요한 초·도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임차료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



고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금성출판사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본사와 각 지점 영업 담당자들이 회원모집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푸르넷 공부방은 오는 14일까지 제234기 푸르넷 신입 지도교사 채용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푸르넷 공부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NHN에듀

청소년 성건강 교육 지원

NHN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대표 진은숙)는 6일 판교 플레이뮤지엄에서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센터장 백재희)와 청소년 성건강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N에듀와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성건강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우선 NHN에듀의 학교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과 10대용 여성 건강 관리 앱 ‘핑크다이아리 주니어’가 보유한 성교육 및 성건강 콘텐츠를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에 제공한다. 10대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정립을 위한 온라인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협력키로 했다. 향후 ‘아이엠스쿨’을 이용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오프라인 성건강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소파 리폼 외길 30년 리폼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낡은 소파 · 의자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소파·의자 / 리폼·천갈이



- 가정용 소파, 의자 천갈이(천, 레자, 가죽)
- 국내외 명품소파 전문수리
- 쿠션관계 등 모든 수리, 부분천갈이
- HOTEL, RESORT, 병원 Maintenance(보수 유지 관리)
- 기업체 관공서 의자류 리모델링
- 국내외 명품 패브릭, 가죽 다양하게 보유
- 가죽소파, 의자 염색재생

www.seoulsofa.co.kr

서울쇼파
seoulsofa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491

전화 한통으로 서울쇼파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전국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콜센터
(무료전화)

080-717-7744

- 서울강남지사: 080-717-7744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양천, 동작, 영등포, 여의도, 관악, 금천, 구로)
- 서울강북지사: 02-822-7798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노원, 강북)
- 경기북부지사: 010-3335-1765 (일산, 덕양, 파주, 교하,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양평, 가평, 홍천, 춘천)
- 경인지사: 032-875-4875 (인천, 연수, 송도, 청라, 서구, 영종, 부평, 계양, 부천시전역)
- 경기 남서부: 010-7744-6658 (김포, 강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평촌)
- 경기 남동부: 080-769-7288 (용인, 수지, 수원, 성남, 분당, 광주, 광교, 동탄, 화성, 오산, 군포, 의왕, 과천, 하남, 이천, 평택, 천안)

명품입고 양산쓰고... 남성 쇼핑 트렌드는 '가치 소비'

브루넬로 쿠치넬리·구찌·루이비통 신세계백 등 남성전용매장 오픈 양산 구매 '남성' 전년 비 122% ↑ 화장품·패션·잡화 등 구매율 늘어

명품 시장이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던 시대는 지났다. 남성들이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남성 전용숍이 생겨나고, 남성을 타깃으로한 마케팅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패션, 잡화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추세다.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은 어느새 남성들의 여름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7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남성 단독 매장을 선보이고 있는 명품 브랜드는 브루넬로 쿠치넬리, 구찌, 루이비통 등이다.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지난달 27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본관에 국내 최초로 남성 단독 매장을 열었고, 구찌는 지난 6월 회현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12월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 남성 전용 매장을 열고 운영 중이다.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남성 단독 매장을 선보이는 이유는 남성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워라벨', '소확



롯데백화점은 25일 서울 소공동 본점 잡화 매장에서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양산을 판매한다. 최근 일주일 동안(7월 18일부터 24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면서 양산 매출은 전년 대비 97.8% 신장했다. /뉴스시스

행' 등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구매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점, 본점에서 명품을 구입한 30대 남성 고객 수는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반면 여성 고객 수는 약 2%대 증가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명품 의류 및 잡화 부문에서도 30대 남성의 매출 비중이 30대 여

성을 9.7% 앞질렀을 정도로 명품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남성용 명품 보석과 장신구 판매량이 10%대로 늘어남에 따라 남성편의점류 매장을 강화했다.

쇼핑에 눈을 뜬 남성들은 패션의 남녀 경계도 허물고 있다. 올 여름 폭염과 맞물리면서 '양산'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이 그 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25일 동안 양산을 구매한 남성 고객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2%나 증가했다. 같은 기



(위부터 차례대로)브루넬로 쿠치넬리, 구찌, 루이비통의 남성 매장 전경. /각사

간 동안 11번가에서는 167% 오름세를 나타냈다.

양산을 가장 많이 산 세대는 40대(35%)였으며, 30대(33%), 50대(15%), 20대(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의 양산 구매 신장률은

238%에 달했다. 40대(196%), 50대(162%), 30대(159%)가 그 뒤를 이었다.

몇 년 전만해도 중년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은 젊은층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은 데 이어, 이제 세대 불문한 남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이는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남성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관심 분야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화장품, 패션, 잡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들의 구매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양산의 경우, 체감온도를 3~7도 가량 낮춰주고 탈모 방지 및 자외선 차단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피부, 탈모 관리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의 구매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옥션의 7월 한 달간 양산 판매량은 83%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남성들의 구매율은 54%에 달했다. 자연스럽게 남성들이 선호하는 무채색 계열의 양산도 속속 쏟아져나오는 추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젊은층 남성들을 중심으로 '가치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제 여성들의 소비 비중을 웃돌고 있다"며 "남성들을 겨냥한 마케팅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11번가, 제주렌터카 실시간 가격비교 시작

차종·보험 등 옵션 맞춰 예약도 가능

11번가가 제주 여행 시 꼭 필요한 렌터카와 항공, 숙박 예약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7월 11번가는 오픈마켓 최초로 '제주렌터카 실시간 가격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제주도 렌터카 가격비교 서비스 플랫폼인 '제주패스'를 통해 고객들은 제주도 지역 내 렌터카 업체들을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출발일 기준으로 차종, 보험 여부, 제조사, 정원 인원, 연료 등 필요한 옵션에 맞게 검색해 최적의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다.

제주패스는 지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해 제주도 내 54개 회사와 제휴를 맺고 226개 차종, 1만4000여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11번가는 그 중 31개 업체의 1만1000여대 차량으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제주패스가 보유한 모든 상품라인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행 관련 서비스의 검색, 예약, 결제 등이 '모바일' 위주로 이동하고 있는 트랜



드를 반영해 이번 '제주렌터카 실시간 가격비교 서비스'는 모바일 앱(App)에서 제공한다.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업체별 특가점 비교 후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내 대표 렌터카 OTA(Online Travel Agency) 업체들의 입점도 늘려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SK플래닛 김수경 여행/O&O TF장은 "'11번가 여행'이 고객 관점에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1 | 해질 / 19:33

8월

8일

음력 : 6월 27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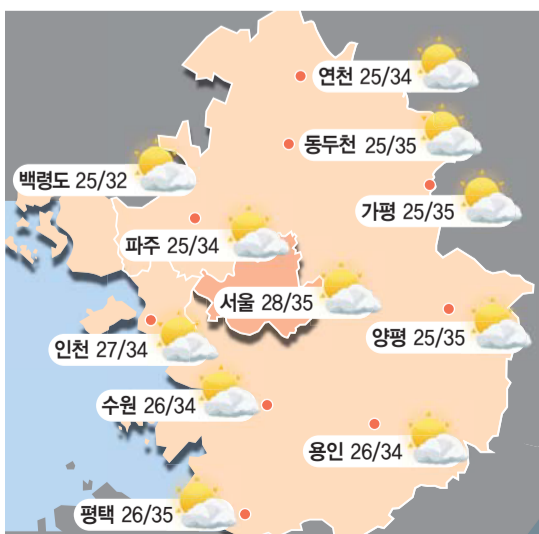
35~2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여름을 즐기는 '맥주축제'

하이트진로 '전주맥주축제'



이랜드 이월드 '썸머 옥토버 페스티벌'

'하이트'로 시원하게!

루프탑서 즐기는 맥주

하이트진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제4회 전주맥주축제'에 특별 후원사로 참여해 지역 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맥주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9일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즐길 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데이' 등을 운영하며 브랜드 홍보에 나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이 자리한 전라도 지역과의 인연으로 지역상생을 위해 4년 연속 특별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주맥주축제는 전주의 독특한 음주문화인 가맥(가맥)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육성을 취지로 축제화하게 됐다. '오늘 생산한 맥주를 오늘 마실 수 있는 맥주 축제'를 표방한 만큼 시원한 맥주와 함께 다양한 가맥 안주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올해 축제에 참여하는 가맥집 24곳은 전주맥주축제추진위원회가 사전 신청을 받아 역사성, 정통성 등을 평가해 공정하게 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축제의 상징이 된 '맥주 연못'을 3일간 운영하며 당일 생산한 시원하고 신선한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4500상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축제 참여 인원과 맥주 소비량을 고려해 올해 공급 물량을 추가 확대했다. 또, 시원한 맥주를 즐기면서 찜통 더위도 잊을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매일 진행하며, 소맥 자격증 발급, 페스티벌 스티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브랜드 홍보부스를 마련해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데이'인 축제 둘째 날(10일)에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특별 무대 프로그램을 저녁 5시부터 진행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하이트진로

이랜드 이월드가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썸머 옥토버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맥주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이월드 83타워 4층 스카이 비어 루프탑 광장에서 진행된다.

수제 맥주를 비롯해 버드와이저, 코로나 등 해외 맥주까지 10여종을 즐길 수 있으며, 그 밖에 푸드트럭존을 운영하여 바비큐 립, 스테이크, 새우 등 다양한 안주와 먹거리도 만날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버스킹팀의 공연도 매일 이어질 예정이며, 비어가든 무대에서는 맥주왕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또 익스트림존에는 대프리카의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줄 펀치, 젠가, 병뚜껑 컬링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현재 83타워 스카이가든에서는 830만개의 전구가 반짝이는 타워 별빛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어 시원한 맥주를 즐기며 인생샷까지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월드 관계자는 "더위에 지친 대구 시민들에게 시원한 맥주 축제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한여름 밤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이랜드 이월드 스카이 비어 루프탑 광장

/이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거리 곳곳에 비치된 서울홍보물. /서울시

英 에든버러 페스티벌서 서울 알린다

서울시, '관광·축제도시' 주제 현지에 홍보물 설치·책자 배포

이달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축제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에서 서울시가 '서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71주년을 맞은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는 매년 여름 열리는 축제다. 지난해 전 세계 48개국의 3398개의 팀이 300여개 공연장에서 총 5만3232회 공연을 선보인바 있다.

서울시는 '관광과 축제의 도시 서울'을 주제로, 에든버러 시내 곳곳에 홍보물로 도배된 '페스티벌 타워', 길거리 난간에 '와이드 스크린', '레일링 보드' 등 총 25개를 설치하고 서울브랜드 'I·SEOUL·U' 로고를 노출시켰다. 또 축제기간 동안 배포되는 홍보책자 120만 부에도 로고를 새겼다.

이달 이 축제에서 한 달 간 배포되는 일부 홍보물엔 서울의 4계절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봄꽃축제 ▲한강몽땅 여름축제 ▲가을 빛조롱축제 ▲겨울 김장문화제도 소개하고 있다. 시는 한국공연을

관람하러 온 해외 관광객들에게 '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르클레지오'가 서울을 배경으로 쓴 소설 '빛나'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 책은 지난해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글과 영어판(Bitna: Under the Sky of Seoul)로 출간됐다. 이어 프랑스어판은 프랑스의 중견 출판사인 에디션 오프 스톡(Editions Stock)을 통해 올해 3월 나왔다.

한편 이번 축제엔 한국의 우수한 문화 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글로벌 문화기업 코리아시즌의 주관으로 국내 4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퓨전 국악탱고 '스위트 탱고' ▲실현적 이미지극 '레이디 구미호에 관하여' ▲연극 '흑백다방' ▲가극극 '리틀 뮤지션'이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구미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 되고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 후 한국방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해 지난 6월엔 전년 동월대비 관광객 수가 6.2% 증가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서울의 매력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허물벗는 매미

7일 새벽 강원 춘천시 삼천동의 야산에서 매미의 유충이 땅속에서 나와 허물을 벗으며 우화(羽化)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진희선 임명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진희선(54·사진) 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이 7일 임명됐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제23회(1987년) 기술고시 출신으로 도시관리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도시재생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생활권 특성을 살린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서울시 도시재생사



로 서울시의 임용제정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오진희 기자

업을 총괄해 온 재생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종로·중구 총 15개동 16.7km² 차로 줄이고 보행로 넓힌다

녹색교통공간 종합대책

서울시, 2030년까지 대책 추진 작년비 승용차교통량 30% 감축 내년부터 공해차량 진입도 제한

내년부터 서울 도심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등에 차도가 축소되고 보행공간은 확대된다. 공해차량의 도심 진입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6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15일 시는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한양도성 내부 16.7km²'를 지정해 요청하고, 승인받은바 있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을 포함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2017년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자전거·대중교통 등 녹색

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한다. 특히 도심 주요사업으로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활활성화 사업)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 연차별로 간선도로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연내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4월 환경부에서 고시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내년부터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을 제한한다. 진출입 교통량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

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당지역 진출입 도로(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한다. 또한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절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 제한속도도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km/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흥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인 서울 한양도성이 녹색교통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 사람이 우선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녹색교통 물결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쪽방촌 주민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서울시-KT그룹 '돌다릿골 빨래터' 세탁기·건조기·진공압축기 마련 자원봉사자 연계 수거·배달 서비스

1~2평 남짓 좁디좁은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을 누구보다 힘겹게 나고 있는 이들도. 서울시와 KT그룹이 1061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주민들의 빨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바로 '돌다릿골 빨래터'다.

서울시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건물 1층에 20m² 규모의 빨래공간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돌다릿골'은 동자동, 후암동 일대를 부르던 옛 우리말 지명이다. 이 빨래터에는 세탁기(30kg 1대), 건조기(30kg 1대), 진공압축기(1대) 등이 갖춰져 있다.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빨래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나머지 4개 쪽방촌 지역(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에도 빨래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돌다릿골 빨래터에 비치된 세탁기. /서울시

이 빨래터에서는 쪽방 주민들의 의류·침구류를 세탁·건조 후 진공으로 압축 포장해서 돌려주는 토털 세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집으로 찾아가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해준다.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진공포장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8명의 직원은 모두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다.

이번 쪽방촌 빨래터 개소를 위해 그동안 서울시와 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그리고 2014년부터 '동자동희망나눔센터'를

설치하고 쪽방촌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KT그룹의 민관협업이 있었다. 올초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제안한 초기 계획서를 가지고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시는 올 한 해 건물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2458만 원)를 지원하고(㈜KT는 세탁기·건조기 등 세탁장비 구입비와 건물 리모델링 비용(3200만 원)을 후원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은누리복지재단에서는 전기 관련 공사비 680만 원과 전담 관리인력 1명을 지원한다.

/오진희 기자

'폭염'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일당 보장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경보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일일 임금은 온전히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폭염주의보 시에도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간당 10~15분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구·투출기관 발주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중지, 일일 임금 지급 등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될 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

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현재 서울시 924곳 공공공사현장에는 6000여명의 옥외근로자가 작업 중이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

서울시, 경보때 오후작업 중단 휴게공간·냉방용품 등도 마련

를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현장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휴게시간, 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산업]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임원진에 재도약 위한 개혁 아이디어 주문 04



Life

[산업] SK브로드밴드 나만의 맞춤 TV로 취향저격 05



알록달록 벽화마을, 다시 회색빛 감성에 젖다

되살아나는 서울의 그늘

2 종로 '이화마을'

2006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유명 관광지 된 '이화벽화마을'

달동네에 활력 불어넣었던 벽화 관광객들 과잉 관광으로 몸살

주민들 회색 페인트로 벽화 지워 관광객 발길 끊기고 상권 죽어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끝자락에는 담벼락 전체가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뒤덮인 작은 마을이 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던 이화마을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대에 벽화작품을 조성, '이화벽화마을'로 재탄생했다.

대학교수,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원봉사자, 중·고등학교 학생, 마을 주민이 벽화 작업에 동참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화마을은 정겨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진 벽화들로 채워졌다.

벽화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조용한 동네는 관광객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연예인 이승기가 날개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 화제가 돼 유명 관광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마을 속으로 들어갈수록 주민들의 속내를 들어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주민들, 관광객 스트레스로 벽화 지워

지난 3일 찾은 이화마을은 관광명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 이날 오후 두시간 동안 마을에서 본 관광객은 10명 남짓이었다.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산책할 겸 이화마을을 들렀다는 직장인 김주희(29) 씨는 "2년 전만 해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는데, 오늘은 사람이 정말 없다. 불금 맞냐"며 썰렁한 동네를 둘러보면서 의아해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고통받던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서울 해화경찰서는 지난 2016년 5월 마을의 벽화를 지운 이화동 주민 5명을 공동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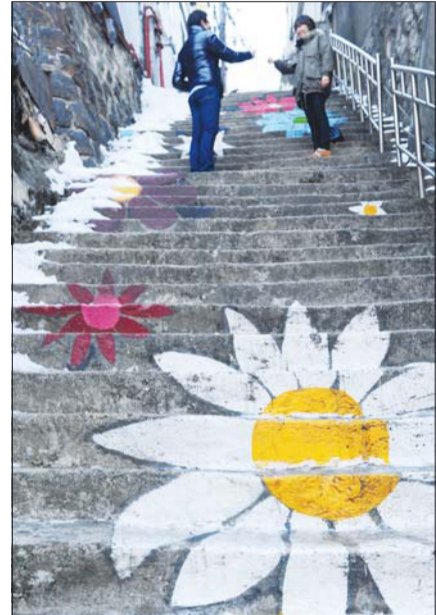
경찰에 붙잡힌 주민 중 3명은 벽화마을 계단에 그려진 4200만원 상당의 해바라기 그림 위에 회색 페인트를 칠해버렸고, 나머지 2명은 1000만원짜리 잉어벽화를 지웠다.

경찰 조사 결과 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낙서 문제에 대해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갖고 벽화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 주민들이 없애버린 '해바라기' 벽화 앞에서 만난 장현성(34) 씨는 "외국



지난 3일 이화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잉어 벽화가 그려져 있던 계단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11년 '해바라기' 벽화 모습. /뉴스시스



지난 3일 계단에 그려져 있던 '해바라기' 벽화는 흔적만 남아 있다.



종로구 이화동 이화벽화마을에는 '임대' 문이 붙은 빈 가게가 있었다.



이화벽화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날개'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 오늘 같이 왔다"며 "입구에서는 아기자기한 조형물이랑 귀여운 그림들이 많아 즐거웠는데, 안으로 들어올수록 점점 무서워진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날 충신4나길 계단에서는 해바라기와 잉어 그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이 사라진 계단 옆 담벽에는 '조용히'라는 말이 빨간색으로 5번 넘게 쓰여져 있었다.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온 서지연(26) 씨는 "학교 앞에서 자취하고 있어 관광객들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주민들 심정을 백번 이해한다"며 "사진을 찍는다고 길을 막고 있거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음, 쓰레기, 낙서 문제는 시에서 정비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주민들끼리 자

체적으로 규약을 정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화마을을 찾은 시민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청객 줄어 환영" vs "손님 없어 불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이게 사람 사는 동네지..."

마을 꼭대기 정자에서 만난 이화동 주민 이모(77) 씨는 관광객이 줄어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이 씨는 "그림 지우고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예전에는 말도 못 하게 시끄러웠다"며 "조용해져서 좋다. 벽화를 지운 사람에게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을 정도"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건너편에 앉아 있던 동네 주민 황도(76) 씨는 "동네에 사람이 많이 와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훼손된 벽화가 하루빨리 복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벽화마을에 있는 잡화점과

카페, 음식점에서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게 안에는 사장과 종업원만 있었다.

지난해 종로구가 발표한 '빅데이터 활용 종로 관광통계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벽화마을이 위치한 이화동의 월평균 관광객 수는 32만5225명이다. 종로구 관내에서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삼청동 북촌한옥마을의 방문객 수(218만 1978명)의 1/7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해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반기에 결정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화동이 오랫동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도로정비, 노후상하수도관 교체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